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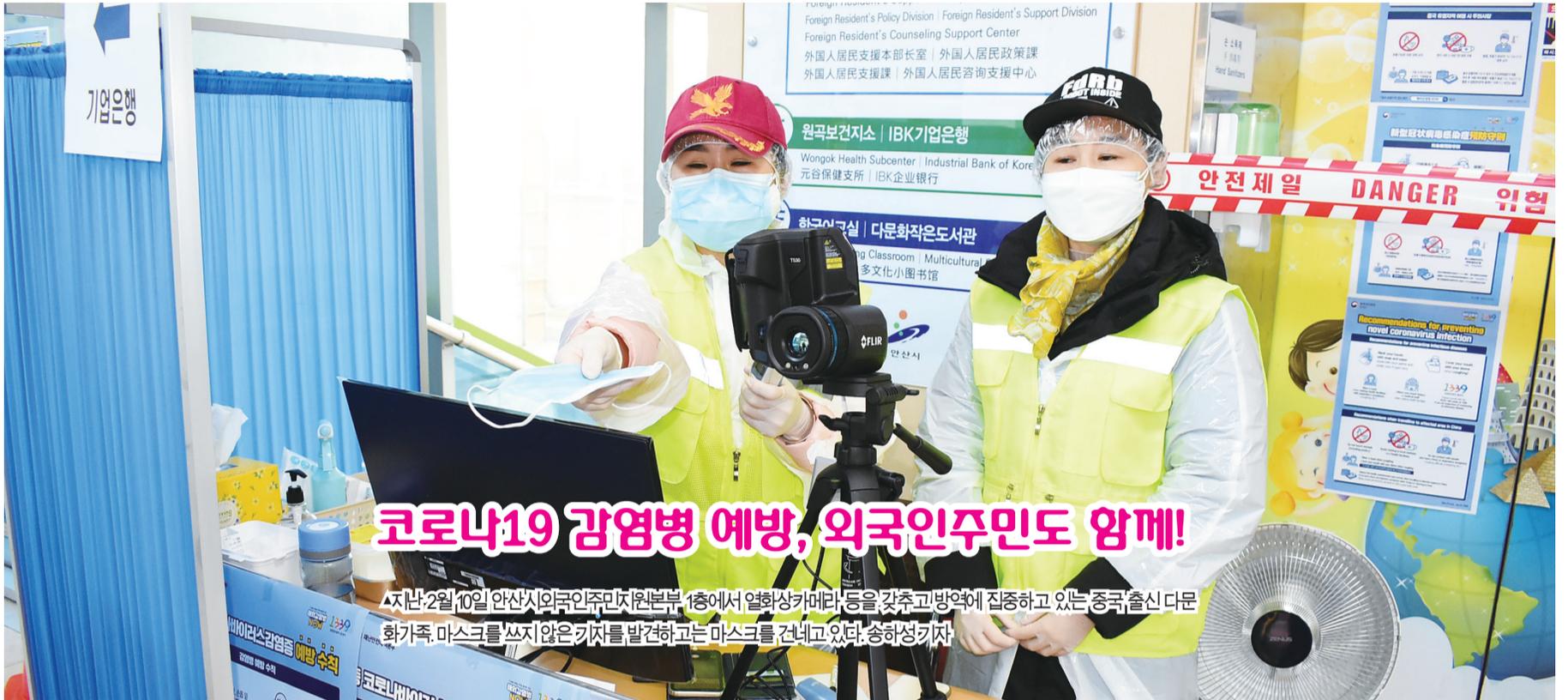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67호 2020년 02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외국인주민도 함께!

지난 2월 10일 안산시의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에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갖추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출신 다문화가족. 마스크를 쓰지 않은 키자를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건네고 있다. 송하성기자

코로나 사태, 중국인 등 외국인은 한국에서 공짜 건강보험 혜택?

최근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공짜로 얻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외에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공짜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국인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정치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도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한국계 중국인 포함)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 다른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고령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중국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은 것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

만약 소득이 많지 않은 외국인 유증상자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자신의 증상을 숨긴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져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한 것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모두 '당연'이라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내국인과 같다. 6.67%(올해 기준)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낸다.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비율이 70% 가까이 되니 대부분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의무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2018년에 6개월로 늘어나 적은 돈을 내고 보험혜택을 받는 '떡튀'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지난해 7월부터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만큼을

무조건 내야 한다.

내국인들은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면제 받지만 외국인들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월 11만원 정도를 내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내국인들은 죽도록 보험료를 내는데 외국인은 너무 적게 낸다"거나 "공짜로 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일부 내국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국내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되겠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6, 10, 13, 22, 3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3, 21, 28, 37, 48 라오스어(Lao) ພາສາລາວ 25 일본어(Japanese) 日本語 4, 17 영어(English) 31, 35 네팔어(Nepali) नेपाल 19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5, 40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2, 33, 41 필리핀어(Tagalog) 14

섹션별
지면 안내

교육 Education 12, 31 생활정보 Information 3, 14, 15, 19, 29, 37, 44 기획 Project 43 한국어 Korean 6 육아 Child Care 22, 25, 32, 42, 46 법률상담 Legal advice 13 체류 visa 22, 36, 41, 48 인권 Human Rights 5 보건 Health 35, 39 취업정보 Job 7, 17, 30, 36, 47 복지 Welfare 27 코로나19 Corona19 1, 2, 8, 10, 15, 20, 24, 28, 33, 37 부동산 Real Estate 3, 6, 12, 17, 21, 40 주거 Residence 7, 16

경기도, '신종 코로나' 적극 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부족 시 경기도의료원 활용, 민관협력 비상대책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자 경기도가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오후 3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해오던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보건건강국장)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9개반 43명)로 확대 했다.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도지사나 부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대상 영상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한 57곳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격리병상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는 등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 학교병원 등 총 26실(28병상)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료원 6 곳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 의료원에는 국가지정 병상 수준이 18병상, 음압병상이 23병상 마련돼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행정1부지사와 보건건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의료원을 시찰했다.

또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 24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 회의와 시군 단체장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안산시와 평택시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안산시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중국 춘절 이후에 평택항 여객선으로 중국인 대거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감지기 등이 노후 화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성 기자



2020년 국비지원 여성IT직업교육 참여자 모집

: 경기도일자리재단 IT 실무 프로젝트 과정

과정 1. UX/UI 디자인 포트폴리오

- ◆ 고급 툴 테크닉
- ◆ HTML5+CSS3 UX/UI/GUI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 ◆ 직무소양교육 / 취업대비교육

과정 1 교육문의 : 031-270-9775

과정 2. UX/UI 웹퍼블리셔 포트폴리오

- ◆ 웹퍼블리싱
- ◆ 포토샵 실무 HTML5+CSS3
- ◆ jQurey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 ◆ 웹/모바일 접근성 표준
- ◆ UI 개발 직무소양교육 / 취업대비교육

과정 2 교육문의 : 031-270-9803

* 상기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교육기간 2020.3.12 - 7.03 (3.12~13 커리어디딤들 3.16~7.3 교육, 총 456시간)

교육대상 IT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만 18세 이상~만35세미만)
*우대사항: 유관 전공자, 유관 경력자, 청년층

교육비 국비무료지원 ※ 교통비 지원: 월 20만원(수업일수 기준 월 80% 이상 출석 시 지원)
*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 :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훈련수당 월 30만원 별도

교육신청 꿈날개 홈페이지 (https://www.dream.go.kr) 회원가입 ▶ 직업교육 ▶ 오프라인과정 ▶ 해당 과정 신청

선발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각 과정별 20명 선발)

접수마감 2020. 03. 08 일

면접심사 2020. 03. 10 화

교육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여성IT직업교육' 교육생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2020년 상반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여성IT직업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급과 고급과정으로 나눠 총 5개 과정이며, 각 과정별로 20명씩 총 1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중급 교육은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3월 9일까지이다. 교육 과정은 ▲전산회계&세무 실무 ▲디지털마케팅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쇼핑몰 운영 전문가 등 3개 과목이다.

고급 교육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신청 기한은 3월 8일까지이다. 교육 과정은 ▲UX/UI 디자인 포트폴리오 ▲UX/UI 웹퍼블리셔 포트폴리오 등 2개 과목이며 현장실습과 심화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취업 컨설팅, 취업대비 면접교육, 포트폴리오 코칭, IT기업 취업 매칭 등의 다양한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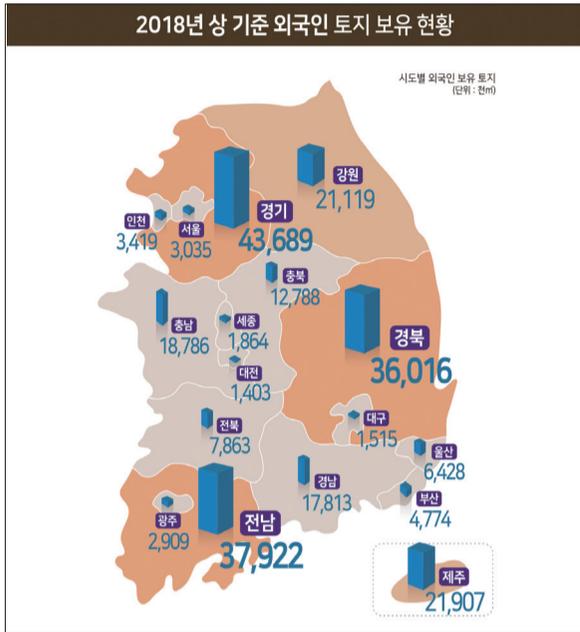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홍춘희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경력 보유 여성들의 새로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해 1대1 맞춤형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교육생도 육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 교육장 내 위치한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http://www.gif.or.kr) 혹은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http://www.dream.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 파악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부동산정보, 주택 매매 이외에도 신축, 증축하면 신고해야



2월부터 외국인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한 경우도 별도 신고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단순 매매 이외에도 외국인 부동산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엔 지자체 신고 과정을 통해 그 수칙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엔 외국인 소유 여부가 신고과정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아 총괄적인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매매 이외의 경우란 예를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재개발은 특정 지역의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

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 시민 서 모 씨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재개발 조합에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낮다며 국제기관에 중재를 요청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33만 달러에 구입한 집을 85만 달러에 보상하겠다는 2017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

정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앞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 파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4139만㎡(241.4㎢)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서울 면적(605㎢)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29조9161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다.

〈중국어 6면, 베트남어 21면, 일본어 17면, 러시아어 12면, 태국어 40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고양시 정보, “쏙쏙 골라 모았어요”

고양시, 다문화가족 등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 눈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받고 구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고양시의 지원을 이용해보자.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올해 531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구매 신청을 받는다.

전기승용자동차는 공고일 2월 12일 전일까지, 전기화물자동차는 공고일 6개월 전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상이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자동차 49대, 전기화물차

동차 35대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자동차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서 생활공구 무상대여

고양시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공구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공구 24세트와 생활전동예초기 16세트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기계 임대사업하고 있다. 대상 농업기계는 농작업에 필요한 미니포크레인, 전동예초기 등 총 74기

종 100여 대다.

또 고양시 지역 8개 농협(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벽제, 송포, 신도, 원당, 지도, 한국화훼, 고양축협)에서는 생활공구 114종을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기술보급팀(031-8075-42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주면 아이스팩 준다

고양시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내에서만 매년 2억 개가 사용되고 버려지는 아이스 팩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뜻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종량제 봉투 줄게 아이스 팩 다오’ 사업을 실시한다.

아이스 팩은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품목에도 들어가지 않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였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 팩 5개를 모아오면 10L 종량제 봉투 한 장으로 교환해주고 이렇게 모아진 아이스 팩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031-8075-7937

김영의 기자

外国人住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しないように! 京畿道、多國語広報制作など、 ‘新型コロナウイルス豫防’ 広報強化

国中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防疫に集中している。そんななか中国から来た外国人と同胞はいっそう關心の対象となっ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発生した場所が中国なうえに、感染者が最も多いのも中国だからだ。京畿道と地域社會は防疫に抜け穴がないよう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中国もそうだが、海外に行き来が多い外国人住民のための關心も必要だ。

京畿道(道知事イ・ジェミョン)は7日の午前中に安山の京畿道外国人人權支援センター(所長オ・ギョンソク)にて、‘外国人住民対象新型コロナウイルス關聯広報、および管理對策’會議を行った。

京畿道の外国人福祉センター6ヶ所と保健所關係者が参加したこの日の會議は、道内に中国人と同胞が35萬人にいることを考慮、新型コロナウイルス擴散防止努力を點檢するために開催された。

リュ・クワンヨル京畿道廳經濟勞動局長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力が強く、初期の能動的對應が重要だ”とし、“各外国人福祉センターで對處している方法、効果的な對應への建議事項を述べてほしい”とした。

現在京畿道の外国人福祉センター6ヶ所と大部分の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教育プログラムと外国人コミュニティーの集まりを暫定中斷している状態だ。センターによっては中国を行き来した移住民を把握し、毎日電話で發熱などを確認するなど、能動的な監視體系をとっているところもある。

イ・ジョンスン水原市外国人福祉センター長は“1週間センターを閉鎖し、大勢が集まる集まりの活動を中斷している”とし、“センターと各国別の僑民會のSNSなどを通じて、重要な内容を広報しているが、死角地帯があるのが現状だ。マート、食堂など、外国人が大勢訪れる場所は直接訪問し、広報ポスターなどを掲示するなど、地域社會が移住民たちが状況を理解しやすいようにと努力している”とした。

現在京畿道は外国人住民対象地域社會ウィルス擴散防止のために、豫防広報活動に力を注いでいる。

外国人勤勞者が多く就業してい

る建設現場などにちらしを配布、自發的豫防活動、および外国人勤勞者が感染症狀がある場合、迅速に申告するように協力を要請している。もし不法滞在外国人に感染症狀が見られる場合、當局に不法滞在が申告されることを恐れ醫療機關を訪問しない可能性があるもので、出入國當局への通報も免除されるようにした。

パク・コンヒ安山市サンロク保健所長は、“ウィルス關聯のフェイクニュースが多く、正確な情報は疾病管理本部や官公署の情報を参考にするように”とし、“安心していいわけではないが、だからといってとても怖がるような状況でもない”とした。

パク所長は“ウィルスは唾液中で感染する。それだけに手洗いが重要だ。20~30秒間手を洗い、咳をするときには手で口を覆う”とし、“咳エチケットを守るだけでも地域社會の豫防は充分可能だ”とした。

外国人嫌惡に対する指摘と論議も進められた。

オ・ギョンソク京畿道外国人人權支援センター所長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外国人嫌惡が擴散するかもしれない”とし、“嫌惡ウィルスはコロナウィルスよりいっそう強力な魂の殺人者だ。防止と豫防のための努力が必要だ”と指摘した。

京畿道はこの日の會議を土臺に、まず國家別コミュニティーを通じて、フェイスブックやウィチャットなど、多くの外国人が使うSNSを活用、感染病豫防行動守則と新たに告知される情報を迅速に多國語で傳達する広報活動を行うことにした。

また、インターネット使用弱者や、センターを利用しない外国人たちのために、道内外國人密集地域に広報資料現場配布、垂れ幕掲示などの広報を推進、死角地帯を解消していく方針だ。

ホン・トンギ京畿道廳外国人政策課長は、“外国人福祉センターが設置されていない市郡については、該当地域で活動している外国人關聯民間團體との懇談會を通じて、持續的な意見垂簾と支援方案を摸索する”と述べた。

<한글 기사 10면> 아키오 기자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실시

다문화가족도 독서동아리 참여하세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2020년 고양시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지역서점이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이며, 선정된 서점은 독서동아리 리더 자원봉사 수당, 저자 강연비, 토론도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서동아리 지원을 희망하는 서점은 도서관 홈페이지(www.goyanglib.or.kr)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지원 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서점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부터 4회의 독서동아리 모임과

연간 2회의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료와 토론도서 대출을 지원받는다. 선정 결과는 2월 26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에서 안내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원 사업에 14개 서점이 참여해 32개 독서동아리가 지원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동아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어릴 적 동네 책방이 생각나서 좋았고, 책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서관 자료구입을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왔다. 2018년에는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점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의 기자

영화 '기생충' 촬영장소 복원된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2026년까지



“영화 ‘기생충’이 제작된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없을까요?”

요즘 아카데미상으로 주가를 한껏 높이고 있는 K시네마 마니아들의 꿈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월 11일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쓴 기생충 제작 스튜디오인 아쿠아스튜디오를 포함한 24만6746㎡ 부지에 추진 중인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들도 영화 기생충의 제작현장을 고양시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기택네 반지하 집과 동네 전체 만들어 촬영

영화 ‘기생충’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

튜디오에서 기택네 반지하 집과 그가 사는 동네 전체를 정교하게 만들어 촬영이 진행됐으며, 칸국제영화제 당시 사회 양극화를 시각화한 ‘기생충’의 반지하 세트 등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다.

기택(송강호 분)은 “실제 서울 시내 어떤 동네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트이다.”, 기우(최우식 분)는 “동네를 세트에 지어놓은 것처럼 실제 그런 집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 배우들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준 것 같다”, 기정(박소담 분)은 “미술감독이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다.

고양시는 우선 기생충 등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화 제작사들과 협의 후 세트장을 복원해 영화 학도는 물론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là gì?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là gì?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đề cập đến những lời nói hoặc hành động có liên quan đến tình dục gây ra bởi chủ doanh nghiệp, cộng sự cao cấp hoặc đồng nghiệp bằng cách sử dụng vị trí nơi làm việc của mình hoặc các mối quan hệ nghề nghiệp gây ra sự xấu hổ hoặc si nhục về tình dục cho người lao động hoặc có hành vi gây bất lợi cho một nhân viên nếu không tham gia vào những lời nói hoặc hành động cụ thể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hoặc không làm theo các yêu cầu khác.

* Điều 2 khoản 2 của "Đạo luật việc làm bình đẳng và hỗ trợ cho việc hòa giải công việc gia đình"

■ Chủ doanh nghiệp, cộng sự cao cấp hoặc đồng nghiệp (bao gồm cả đồng nghiệp và các cộng sự cấp dưới)

* Ở đây cấp trên đề cập đến những người có thể sử dụng vị trí của mình ở nơi làm việc, họ là các tổng giám đốc, giám đốc điều hành, và giám đốc không thường trực.

■ Với các đồng nghiệp khác

* Nạn nhân của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có thể là nam hay nữ, nhưng chủ yếu là nữ nhân viên có vị trí cấp thấp hơn. Tuy nhiên, công nhân nam cũng bị quấy rối tình dục.

■ Sử dụng chức vụ ở nơi làm việc của mình hoặc các mối quan hệ nghề nghiệp

■ hành vi bằng lời nói hoặc hành động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gây ra sự xấu hổ hoặc si nhục về tình dục cho nhân viên khác hoặc hành động gây bất lợi cho một nhân viên về việc không tham gia vào hành vi bằng lời nói hoặc hành động cụ thể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hoặc không làm theo các yêu cầu khác

Chủ doanh nghiệp, cộng sự cao cấp và đồng nghiệp không được tham gia vào việc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Điều 12 của Đạo luật)

Các hành vi hình thành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 Bảng 1 của Quy chế thi hành "Đạo luật về việc làm bình đẳng và hỗ trợ hòa giải công việc gia đình"

Hành vi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 Cư xử bằng hành động

- Đụng chạm vào cơ thể bao gồm cả ôm, hôn hay ôm sau lưng
- Hành vi chạm vào các vùng cơ thể cụ thể như vú và mông
- Hành vi bắt buộc xoa bóp hoặc vuốt ve

■ Cư xử bằng lời

- Hành vi nói ra những câu đùa tục tĩu hoặc những câu chuyện lãng nhãng (bao gồm cả các cuộc gọi điện thoại)
- Hành vi thể hiện tình dục hoặc đánh giá một cách ẩn dụ
- Hành vi tìm hiểu mối quan hệ tình dục hoặc cố ý truyền bá thông tin tình dục
- Hành vi ép buộc quan hệ tình dục hoặc cố gắng để đạt được mối quan hệ như vậy
- Hành vi bắt nạn nhân rót uống tại các bữa tiệc văn phòng

■ Hành vi trực quan

- Hành vi đăng hoặc hiển thị các hình ảnh, hình ảnh, graffiti và các ấn phẩm khiêu dâm (bao gồm cả những cái qua thông tin liên lạc trên máy tính và fax)
- Hành vi trưng bày hoặc chạm vào các vùng cơ thể cụ thể

■ Hành vi bằng lời nói hoặc hành động gây ra sự xấu hổ và si nhục về tình dục theo chuẩn mực xã hội

Các bất lợi trong việc làm

- Các hành vi cố ý gây bất lợi cho điều kiện làm việc hoặc công việc của nhân viên, bao gồm cả từ chối tuyển dụng, cắt giảm tiền lương, loại bỏ khỏi cạnh tranh thăng tiến, chuyển, đình chỉ và nghỉ không lương

Ghi chú

Khi xác định một hành vi nào đó được coi là một hành vi quấy rối tình dục, những điều kiện chủ quan của nạn nhân sẽ được xem xét trong khi nó cũng cần được xem xét một người bình thường trong xã hội nghĩ và hành động như thế nào đối với hành động mà đã nảy sinh ra tranh cãi. Nói tóm lại, phải được kiểm tra xem hành vi đó có tạo môi trường làm việc đe dọa hoặc thù địch để làm giảm năng suất.



Cách để đối phó với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Bạn phải hành động kiên quyết với quấy rối tình dục ở nơi làm việc.

■ Từ chối dứt khoát các hành vi của kẻ quấy rối tình dục.

* Khi khó chỉ ra lời từ chối như vậy, các hình thức khác như thư phải được dùng đến để yêu cầu ngưng ngay các hành vi như vậy.

■ Giữ chứng cứ.

* Ghi lại ngày, thời gian, địa điểm, chi tiết cụ thể, nhân chứng, và cảm giác về những hành vi bằng lời nói và hành động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 Yêu cầu người giám sát quản lý công bằng hoặc người quản lý khiếu nại cho lời khuyên và giúp đỡ ngưng ngay lại hành vi đó. Khi người quản lý khiếu nại không có ở nơi làm việc, báo cáo trường hợp với cấp trên.

■ Báo cáo trường hợp với cơ quan lao động địa phương hoặc tham khảo ý kiến với công chức.

■ Điện thoại 1644-3119

모바일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Ứng dụng di động "Ứng dụng báo cáo vi phạm lao động!"
 Website: www.moel.go.kr
 Website di động: m.moel.go.kr

* Tổng đài Khách hàng của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điện thoại 1350) có sẵn để đưa ra tham vấn đơn giản về quấy rối tình dục tại nơi làm việc.

* Các nhà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Trung tâm Tư vấn Bình đẳng Việc làm (15 trung tâm trên toàn quốc)

* Cuộc gọi Khẩn cấp Phụ nữ 1366 về bạo lực tình dục và quấy rối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0. 삼한사온에 대해

대화-거실에서



안진숙

조이 : 설날이 지나자 갑자기 추워졌어요.
 메이 : 어제까지는 푸근했는데 오늘 갑자기 춥네.
 준기 : 설 명절 때 날씨가 좋아서 고향 갈 때도 편하게 잘 다녀와서 다행이야.
 메이 : 맞아요. 친척 분들 인사드리러 갈 때도 아기가 추울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준기 : 이번에 처음 조이를 보셨는데 친척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인기가 많았어.
 조이 : 너무 친절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고맙웠어요.
 준기 : 이번 주말에 학교에 가야 한다면?
 조이 : 학교에서 입학설명회가 있는데 제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통역 지원하러 가요.
 메이 : 날씨가 춥기도 하고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걱정이예요.
 준기 : 한국은 겨울에 삼한사온이라고 3일 춥고 4일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너무 따뜻한 겨울이야. 이젠 삼한사온이 없어진 것 같지만 한국의 겨울 날씨 특징이긴 해.
 조이 : 저는 이제 겨울 추위에 잘 적응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위생도 조심하고 있어요.
 메이 : 당신도 출퇴근할 때 조심해서 다니세요.
 준기 :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위생에 주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잘 대비하고 있어,
 메이 : 난 집에 있지만 아기를 위해 외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
 조이 : 학교에서도 이번 행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삼한사온'은 '겨울철에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3일 가량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4일 가량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삼한사온이라는 한국 겨울의 전통적인 날씨 특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삼한사온

겨울철에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3일 가량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4일 가량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기후 현상

- 올해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삼한사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주말에는 관심을 가져요.

날씨도 춥고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로 활기찬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한국문화 - 개인위생 관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차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 관리가 핵심입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加强多文化家庭房地产信息, 了解外国人住房拥有现状 다문화가족 부동산 정보

从2月开始, 外国人通过再开发等整顿事业购买房地产或在本人的土地上新建或扩建建筑物的情况也将作为申报对象进行管理。政府的方针是, 通过这种方式, 除了单纯的交易以外, 还正确掌握外国人的房地产所有现状, 并反映在政府政策上。

据政府有关负责人透露, 国土交通部将从21日开始实施上述内容的房地产交易申报法施行令修订案。

国土海洋部土地政策科科长南英宇表示:“此前, 外国人通过买卖住宅等房地产获得的情况, 通过地方自治团体的申报过程, 对其数值和现状进行了单独管理。但是, 在申报过程中, 外国人是否拥有除交易以外的情况, 没有单独分类, 因此总体上很难掌握外国人拥有房地产的现状。”

买卖以外的, 例如, 在外国人所拥有的土地上建设或增建建筑物, 并根据再开发等整顿事业得到住宅补偿的情况。

再开发是指, 如果认为特定地区的建筑物等已经老化, 对人的生活不太方便, 就经过相关地区居民的同意和地方自治团体的许可, 将全部旧建筑物全部毁坏, 并建设新住宅。

政府之所以对外国人拥有房地产的现状反应敏感, 是因为美国市民权者以韩美自由贸易协定(FTA)为依据, 提出了“投资者国家诉讼(ISD)仲裁意向书”。

2013年, 美国市民徐某在购买位于再开发事业区域的房屋后, 向再开发组合重新销售该房地产的过程中, 以组合提出的金额较低为由, 向国际机关提出了仲裁要求。

尽管进行了多次协商和仲裁, 但徐某仍拒绝首尔市地方土地征用委员会提出的以85万美元补偿用33万美元购买的房子的提议, 试图挑起国际纠纷。

政府计划在再开发过程中发生的纷争, 今后将进一步加强对外国人房地产现状的了解。

另外, 去年年末, 外国投资者持有国内土地面积2亿194139万㎡(241km²)4年前国土面积(10万364km²)的0.2%的水平。首尔面积(605km²)的五分之二, 金额相当于29条达9161亿韩元(公示地价标准)。从国籍来看, 美国增加了0.6%为1亿2551万㎡, 占全部外国投资者拥有的面积占52%。其后依次为中国7.8%、日本7.6%、欧洲7.4%。

〈한글 기사 3면〉 왕그나 기자



2020년 인클로버재단

다문화 청소년 사진교육 신입생모집

인클로버 재단
Enabling People

모집분야 기초과정 20명 선발

모집기간 2020년 2월 23일 (일)

지원자격 만 13 ~ 18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입학식 2020년 3월 7일(토) 오전10시 종각역 그랑서울 타워2 15층

개요

- 교육기간 2020년 3월 - 11월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15층)
- 지원내용 1) 수강료 없음 2) DSLR 카메라 무료대여 3)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4) 중식 및 간식제공 5) 왕복 교통비 지원
- 신청서류 법인소정 양식 (인클로버재단 홈페이지 www.inclover.or.kr >자료실>신청서식)
- 신청방법 1) 이메일 : inc2009@inclover.or.kr 2) 우 편 : (05510)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A동 507호 (더샵스타파크)

문의 02-508-1799



주최  후원 및 지원  

평화의료, 일자리 복지 위해 나섰다

고양시, 다문화가족 취업 등에 도움되도록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월 30일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고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의료 및 일자리 복지’ 관련 주요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김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두원공과대학 박정규 학과장, 고양시정연구원 안지호 시민정책연구부장, 고양시식정보산업진흥원 조준혁 팀장, 고양상공회의소 구성진 사무국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는 ‘남북보건의료협력’과 ‘일자리 복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민선7기 시정 슬로건에 맞추어 고양시의 평화와 미래를 화두로 민. 관. 학. 연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관 주도의 정책 발굴에서 탈피하고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국립암센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여러 대형병원이 위치한 고양시는 현재 국립암센터와 협력해 남북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 김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고양평화의료센터(가칭) 개소 ▲보건의료협력 관련 국내 및 해외 포럼 개최 ▲접경지역 평화의료클러스터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은 “북한 접경 지역 중 가장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대형병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고 남북의료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박정규 두원공과대학 교수는 ‘고양시일자리통합교육플랫폼구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구인.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정보 및 교육 제공 ▲제4차 산업혁명 및 바이오 기술 교육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교육장 제공 등을 제시했다.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 연구기관, 구직자,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주거급여 받아요

고양시,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 확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 중 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51,000원(경기, 인천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소득이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 혹은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해 보자.

고양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0년 고양 행복텃밭 분양 신청 안내

1. 운영 개요

농장명 (주소)	2020년 행복텃밭 분양 계획					분양기간	
	구좌수	분양면적 (1세대당)	임대료(원)		선정대상		
계	10개 농장	600	소계	차부담	지원	고양시민 2020. 4.1.~11.25. (8개월)	
덕양구 (4개소)	에덴정원주말농장 (덕양구 고양동 430-1)	50	16.5㎡ (5평)	100,000	70,000		30,000
	고양대곡텃밭농장 (덕양구 대곡동 565)	50					
	향동주말농장 (덕양구 향동동 13-17)	50					
	원두막주말농장 (덕양구 효자동 106)	50					
일산동구 (3개소)	방아깨비주말농장 (일산동구 성석동 1300)	150	16.5㎡ (5평)	100,000	70,000		30,000
	달나유주말농장 (일산동구 성석동 2121)	50					
	자연애들주말농장 (일산동구 산왕동 729-2)	50					
일산서구 (3개소)	늘푸른주말농장 (일산서구 구산동 1867)	50	16.5㎡ (5평)	100,000	70,000		30,000
	돌풍힐링주말농장 (일산서구 덕이동 1513)	50					
대화동주말농장 (일산서구 대화동 176-2)	50						

2. 운영 절차 및 신청 방법

- 홍보 및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 28.(금)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인 시민
 - ※ 우선분양 : 고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신청방법 :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471-10) / 문의 031-8075-4272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농업팀(☎031-8075-42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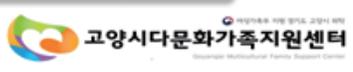
신나는 놀이체험이다 ^^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즐겁고 신나는 이벤트!!

[잭슨 나인스 탄현점] 실내 테마파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참여일정: 매일 둘째 주 토요일 10:00~23:00(자유입장)
- ❖ 신청대상: 다문화가족-(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 ❖ ※ 매일 15가정만 접수 받습니다~
- ❖ 입장가능 연령: 36개월 이상
- ❖ 입장료: 무료
- ❖ 신청방법 : ☎ 031-938-9806
- ❖ 담당자: 사춘렌(중국여통번역사)
- ❖ 후원업체: 잭슨 나인스 일산 탄현점
-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두산웨브터제니스스퀘어 지하1층)
- ❖ ※ 시설중에 VR, 안전체험관등 유료시설있으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

외국인 대상 맞춤형 홍보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나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단체와 긴급회의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관계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가운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안산시 관내 외국인 지원기관과 단체 24개소가 참여해 감염증 진행 추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 평균 3만여 명이 넘게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열화상감지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사진 왼쪽과 오른쪽)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문화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안내하

는 다국어 현수막 게시와 SNS 및 안산역,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대 등 외국인 밀집지역 가두방송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국어 통역관, 선별진료소에 파견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중국어 통역관을 안산시에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도병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주민모니터단과 외국인주민협의회 등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방활동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31일에는 법무부 안산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 귀한동포연합회 등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 MOU 민관 협약기관과 단체 18개,

안산시베트남이주여성협회, 외국인주민협의회 등 내외국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돌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감염증 예방수칙 전단과 마스크를 배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라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외국인 대상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이 협업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걱정은 반으로
접으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임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 *특: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비뇨기질환, 중추신경질환, 중추관질환
- 지원기준: 소득허위50%(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가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의료비 발생 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본인부담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의 50% 지원
- 지원일수: 질병별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

신청방법

- 회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0년 1기 외국어회화 동아리 Café 회원 모집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외국어회화동아리 Cafe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외국어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20. 3. 7. ~ 4. 27.(주 1회 120분)
- 신청기간 : 2020. 2. 17. ~ 2. 28.
- 교육장소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다문화교육장
- 대 상 : 안산시 거주 시민(초,중,고교생 제외) **선착순 모집**
- 수업료 : 무료 (안산시 지원)
- 접수방법 :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 접속 ◦ 우측중간 "외국어회화 동아리" 배너 클릭 ◦ 좌측중간 "**회화동아리신청**"
- 모집과정 : 4개 과정 (4개 언어)

구분	과정명	강사	수업일시	모집인원	비고
1	중국어(초급)	공개모집중	월(19:00~21:00)	15명	
2	베트남어(초급)	공개모집중	토(14:00~16:00)	15명	
3	러시아어(초급)	공개모집중	토(10:00~12:00)	15명	
4	인도네시아어(초급)	공개모집중	월(19:00~21:00)	15명	

- ※ 각 과정은 10명 이상 수강신청 시 개강되며, 출석인원이 7명 미만이면 2회 이상 될 경우 **익월 폐강**됩니다.
- ※ 수강일차 및 시간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언어별 1인 1개 과정 만 신청, 수강신청 시 반드시 핸드폰 번호 기재요망, 안내 및 휴강 등은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결석 3회 이상 시 연속수강제한 됩니다.
- ※ **교육개강: 질병관리본부대응에 따라 교육진행여부 공지 예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031-481-3736)

안산시,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 지정

안산시의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내외국인 상호존중하고 교류하는 모습 인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상호문화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선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

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안산시는 오는 2월 18일 유럽을 방문해 상호문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방문을 연기하고 서면협약으로 체결을 대신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 136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시아 국가 도시는 1개에 불과하다.

안산시가 지정되면 137번째 상호문화도시이자 아시아 2번째 도시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90개 지표 103개 문항 대다수를 충족함은 물론, 아시아 상호문화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유럽평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안산시는 유럽평의회 및 선진 회원도시와의 적극

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상호문화도시 육성 실행계획 수립과 시민 이해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국 8만7천696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외국인 인권,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의 우수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세계적인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에서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만큼 문화 다양성을 안산시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최고의 상호문화도시 조성, 전국 최초로 모범사례 만들겠다”

윤화섭 시장, 다문화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호문화도시 ‘인정과 상생’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는 민선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UN 국제청년다문화도시 추진’ 일환으로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 지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관련 TF를 꾸려 추진,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상호문화도시의 1949년 설립돼 현재 47개국이 가입한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 주관으로 2008년부터 유럽연합(EU)과 함께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산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다. 상호문화도시의 다양한 외국인과 선주민이 상호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단순히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시는 상호문화 우수정책을 개발하는데 전문적인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상호문화 및 다문화 분야 회원도시와 국제 교류·국제회의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전 세계에서 137번째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이뤄낸 성과로, 안산시가 만들어낸 다문화관련 정책은 모범사례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또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문화 주민 지원정책의 우수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안산시는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국 8만7천696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로, 외국인인권,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

고 있다.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2005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2년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 협치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안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를 2009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민선7기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3년부터 글로벌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며 “국제거리극축제로 대표되는 다문화축제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더욱 증진하는 한편, 아시아의 상호문화도시하면 안산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국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없도록!

경기도청,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 '신종 코로나 예방' 홍보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에서 온 외국인과 동포들은 더 관심의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중국인데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도 중국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지역사회는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중국도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많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관심도 필요한 때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7일 오전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에서 '외국인주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홍보 및 관리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6개 외국인복지센터와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도내 중국인과 동포가 35만명에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광열 경기도청 경제노동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 초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식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6개 외국인복지센터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공동체 모임을 잠정중단한 상태다. 센터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이주민을 파악해 날마다 전화해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체계로 들어간 곳도 있다.

이종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1주일째 센터 문을 닫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며 "센터와 각 나라별 교민회의 SNS 등을 통해 중요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트, 식당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모든 이주민들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대상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취업해 있는 건설현장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발적 예방활동 및 외국인근로자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 불법체류가 신고될 것을 두려워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지 않도록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는 것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박건희 안산시 상록시보건소장은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가 워낙 많아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나 관공서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며 "너무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포스러운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바이러스는 침방울로 전파된다. 그래

서 손씻기가 중요하다. 20~30초간 손을 씻고 기침은 입을 막고 소매에 해야 한다"며 "기침 예절을 잘 지킨다면 지역사회 예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지적과 논의도 진행됐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인 혐오가 확산될 수 있다"며 "혐오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다. 방지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우선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위챗 등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 감염병 예방행동수칙과 새로이 공지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다국어로 전달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나 복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홍보자료 현장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를 추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홍동기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어 28면, 일본어 4면, 태국어 15면, 러시아어 33면〉 송하성 기자



不让外国人感染新型冠状病毒! 京畿道加强制作多语宣传物等“新型冠状病毒”宣传力度

由于新型冠状病毒,全国都在集中防疫。其中,来自中国的外国人和同胞更加受到关注。因为新型冠状病毒的发源地是中国人,而且感染者最多的地方也是中国。京畿道和地区社会担心防疫出现漏洞。中国也是如此,有必要关心进出海外的外国居民。

京畿道(道知事李在明)7日上午在位于安山的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召开了“针对外国人居民的新型冠状病毒相关宣传及管理对策”会议。

当天的会议有京畿道的6个外国人福利中心和保健所的相关人士参加,是为道内的35万名中国人和同胞们,防止新型冠状病毒扩散而做出的努力检验而准备的。

京畿道厅经济劳动局长柳光烈表示:“新型冠状病毒的传播力很强,初期要主动应对非常重要。我想听取各外国人福利中心对应方式和有效应对提出的建议。”

目前,京畿道的6个外国人福利中心和大部分多文化家庭支援中心暂时中断了教育计划和外国人共同体聚会。有些医院根据中心掌握了从中国归来的移民,并每天打电话确认其是否发烧

等,进入了主动性的监视体系。水原外国人福利中心负责人李钟淳表示:“该中心已经关闭了一周时间,多人聚集在一起的活动已经中断。目前正通过该中心和各国侨民会议SNS等宣传重要内容,但确实存在死角。我正在努力通过直接访问超市、餐厅等外国人经常光顾的地方宣传,通过宣传方式让地区社会的所有移民者都能很好地理解状况。”

目前,京畿道正以外国居民为对象,集中进行预防和宣传活动,以防止地区社会病毒的扩散。

目前,政府正在向多名外国劳动者就业的建设现场等地发放宣传物,并要求提供协助,以便在主动预防活动及外国劳动者出现疑似症状时,能够迅速被举报。政府还规定,如果非法滞留的外国人出现疑似症状,就害怕被当局申报非法滞留,因此可以免除向出入境当局通报,使其不忌讳访问医疗机构。

安山市常绿市保健所所长朴建熙表示:“病毒相关的假新闻本来就很多,正确的信息最好参考疾病管理本部和政府部门的信息。虽然不能过于放心,但也不可怕。”

朴所长还说:“病毒是通过唾液传播的。因此洗手很重要。在20~30秒的时间里,应该洗手、咳嗽、捂住嘴,然后零售。只要好好遵守咳嗽礼节,完全可以预防地区社会。”

同时还指出了外国人的厌恶情绪,并进行了相关讨论。

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所长吴京锡表示:“新型科罗纳病毒可能导致厌恶外国人的情绪扩散。厌恶病毒可以说是比科罗纳病毒更强的灵魂杀手。为了防止和预防我们需要努力。”

京畿道决定以当天的会议为基础,首先通过各国共同体聚会,利用facebook、微信等外国人经常使用的SNS,迅速展开用多国语言传播传染病预防行动守则和新公告信息的宣传活动。

另外,为了不通过网络脆弱者或福利中心的外国人,将推进在道内外国人密集地区现场发放宣传资料、悬挂条幅等宣传方式,消除死角。京畿道厅外国人政策科科长洪东基表示:“对于没有设立外国人福利中心的市郡,将通过和在相关地区活动的外国人相关民间团体举行座谈会,继续收集意见并寻求支援方案。”

왕그나기자

안산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여가부 지역연계 공모사업 선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 이주 청소년의 입국부터 취업, 자립까지 지원하는 가칭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을 추진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범사업에는 지난달 29일 안산시와 화성시 등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2억3천9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3억6천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앞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안산시는 점차 늘어나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입국 초기부터 취업, 자립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칭)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하며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드림스타트, 예비초등학생에 의망과 꿈 담는 책가방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드림스타트 예비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책가방 지원사업’을 펼친다.

안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안산동산교회, 그린시티교회에서 후원한 책가방 세트(신발주머니 포함) 15개와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으로부터 마련한 2개 등 모두 380만원 상당의 총 37개 책가방 세트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들의 학습에 필요한 입학준비 학용품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 방역이 필요한 가정의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가정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22개 가정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에는 이경숙 안산시 여성가족과장, 조병호 ㈜세스코 서부지역본부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단원센터 프로그램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회의 현장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협의체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아요!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An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서, 자립지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여 종합적, 지속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발족하였습니다.

그간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승미 센터장, 수원시글로벌교육센터 허승연 부센터장이 이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설립 취지는?

이주의 역사 안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이슈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 정서지원, 진로지원, 전생애발달적 관점에서 복지지원 등의 이슈와 쟁점을 다루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회의 현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2020년 사업계획은?

새롭게 시작될 소분과연구모임으로 회원단체들이 마주하게 될 난민 아동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난민아동인권연구모임'을 실무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원단체들의 실무자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는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회의 현장



Многокультур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емейной недвижимости и удержании жилья иностранцами.

В феврал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тают недвижимость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ов по перепланировке, таких как перепланировка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расширение новых зданий на собственной земле, подлежат отдельной отчетност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точно понять статус влад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в дополнение к простым продажам и отразить это в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внесет поправки в Указ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Закона об отчетности о сделках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21-го числа.

Нам Янг-Ву, гла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зем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управляющий цифрами и статусом отдельно через процесс отчетност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обретающих недвижимость, такую как жилье,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Вне торговли иностран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е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лась отдельно в процессе отчетности, поэтому было трудно понять общий статус иностра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лучай, отличающийся от продажи, - это когда здание или пристройка строятся на земле, принадлежащей иностранцу, и жилье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обслуживанием, таким как перепланировка.

Перепланировка означает разрушение всех старых зданий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с согласи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одобрением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если они считают, что им неудобно жить из-за износа зданий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области.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влад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граждане США представили арбитражную форму ISD в с

〈한글기사 3면〉

사르비노즈 기자

새로운 '안산시민의 노래' 제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안산시민의 노래'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안산시민의 노래는 지난해 3월 작곡가 김동진 씨가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사용을 중지했다.

안산시는 이후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하며 제정을 확정했다.

작사·작곡은 작곡분야에서 다양한 실적과 수상을 통해 널리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은선 작곡가가 맡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제정된 안산시민의 노래는 30~40년 전에 제정된 기존 타 지자체 시가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이면서 음악적으로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지은 기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이달 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0년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5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3월6일까지는 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에 마련된 접수처에, 이후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이며,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안산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연 최대 2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1~4단계로 나눠 관내 거주 대학생들의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점차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들도 안산시의 지원기준에 해당한다면 지원해 보자.

김영의 기자

다문화도서 하면 한결문고 한결문고 하면 다문화도서

국내 최대 25개 국가 수입!
국내 최고 신청도서 납품율!
국내 최초 수입 노하우 활용!

취급품목

- 출판물(베스트셀러/전문/교육용도서/잡지)
- 교재(교과서)-학습교과서/어학교재
- 영상물(DVD)-문화체험(드라마, 영화)
- 음반(오디오, CD)

〈다문화도서 구입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0-3 2층 외서팀

Tel. 032-325-4755

E-mail. hope6401@hanmail.net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중도입국자녀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 출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방문동거(F-1) 비자(사증)를 받을 수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귀화 신청을 하거나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으면 부모의 전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의 미성년 자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본국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본국의 미성년 자녀를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로 입양시켜 한국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과 그 부모(미성년 자녀의 친부모)의 동의를 받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게 되면 이 자녀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F-5)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중도입국 자녀를 입양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귀화신청할 때 수반취득 신청을 하여 함께 대한민국 국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ống ở Hàn Quốc với tư cách là người co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ó nhiều trường hợp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khi tái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muốn bảo lãnh con riêng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của mình sang Hàn Quốc để sống cù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những đứa con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tại Hàn Quốc sẽ nhận được visa (thị thực) thăm thân loại F-1, Tuy nhiên, khi chúng tới tuổi vị thành niên thì nếu không nộp hồ sơ xin nhập tịch hay xin việc hoặc visa du học thì không thể được ở lại dù với tư cách là con riêng của người đã tái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Vì vậy, để đứa con riêng ở tuổi vị thành niên của mình có thể được định cư lâu dài và ổn định tại Hàn Quốc thì chỉ có cách là cùng chồng (vợ) người Hàn Quốc nhận nuôi đứa trẻ đó. Nếu người chồng Hàn quốc đồng ý thì có thể nhận đứa con riêng tuổi vị thành niên ở nước của người phụ nữ làm con nuôi của hai vợ chồng và cùng sống với nhau lâu dài.

Để nhận con nuôi, theo quy định, bạn phải có sự đồng ý của cha (mẹ) nuôi và sự đồng ý của cha mẹ đẻ (cha mẹ trước của đứa trẻ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và có giấy phép nhận con nuôi từ Tòa án Gia đình. Nếu không thể liên lạc với cha mẹ ruột của đứa trẻ thì có thể gửi bằng chứng rằng bạn không biết họ đang ở đâu và bạn có thể được cấp giấy phép nhận con nuôi mà không cần sự đồng ý của bố mẹ đẻ của đứa trẻ.

Nếu nhận được giấy phép nhận con nuôi từ Tòa án gia đình, thì đứa trẻ này là một công dân chưa thành niên của Hàn Quốc nên sẽ được cấp visa F-2, để có thể sống ở Hàn Quốc. Và sau khi sống ở Hàn Quốc hơn 2 năm, đứa trẻ đó sẽ nhận được thị thực thường trú F-5(Định cư vĩnh viễn). Mặt khác, một đứa trẻ chưa đủ tuổi thành niên được nhận nuôi thì nó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p tịch đặc biệt theo luật Quốc tịch của Hàn Quốc. Do đó, nếu như có một địa chỉ cố định tại Hàn quốc đứa trẻ có sẽ thể được phép nhập tịch và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Và ngay cả khi người chồng (vợ) người Hàn Quốc không đồng ý việc nhận đứa con riêng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đó làm con nuôi thì khi cha mẹ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những đứa trẻ khi nộp đơn xin quốc tịch cũng có thể nộp cùng để cùng nhau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作为中低收入国家的子女在韩国的生活。

有韩国人与再婚的外国人想把与本国前配偶所生的未成年子女带到韩国一起生活的情况。

如果子女尚未成年，可以作为结婚移民者的家属申请访问同居(F-1)签证(签证)，但如果成年后不申请入籍或申请就业签证或留学签证，就不能仅凭父母的前婚家庭子女的理由在韩国滞留。

因此，为了本国未成年子女长期稳定地留在韩国，只能和韩国配偶一起收养本国未成年子女。如果韩国配偶同意，本国的未成年子女可以由韩国男性和结婚移民女性收养，在韩国一起生活。

收养未成年子女，原则上应当征得被收养人的承诺以及其父母(未成年子女的亲生父母)的同意，并由家庭法院给予收养许可。如果无法与亲生父母取得联系，就提出无法得知亲生父母去向的证据资料，即使没有亲生父母的同意，也可以得到家庭法院的许可。

如果得到家庭法院的领养许可，该子女作为国民未成年子女可以获得居住(F-2)签证，在大韩民国滞留2年以上，就可以获得永久居留(F-5)签证。

另外，被领养的未成年子女在《国籍法》上属于特别入籍对象(父或母是大韩民国的国民)，因此，如果在大韩民国有所居，可以得到入籍许可，成为大韩民国的国民。

此外，即使韩国配偶不收养中等收入国家的子女，子女的外国父母申请入籍时也可以同时申请取得韩国国籍。

이은혜 변호사는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2월 이주여성과 아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Mga Pang-araw-araw na Payo para sa mga Dayuhan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Maaaring higit na mas mahirap ang paninirahan sa Korea kaysa sa iyong inaakala. Makakatulong kung itatala mo ang mga tao o institusyong makakatulong sa iyo sa panahon ng pangangailangan para makapaghandang ka sa panahon ng pagpipilian. Maraming uri ng impormasyong kailangan mo para sa pamumuhay sa Korea. Ipapaalam namin sa iyo ang ilan sa mga ito. Tandaan, maaari kang magtanong kung may hindi ka alam o mayroon kang nais malaman. Kung hindi ka naman nakakapagsalita ng wikang Koreano, maaari kang gumamit ng mga 'di-berbal na komunikasyon gaya ng pagkumpas o pangmukhang ekspresyon. Mas makakabuti ito kaysa walang gawin o manahimik na lamang.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급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메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아되어야 할 정보는 매우 많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몸짓, 표정 등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됩니다.

1. Pagtawag sa Ibang Bansa (International Calls)

Ang pagtawag sa ibang bansa o international calls ay higit na mas mahal kumpara sa pagtawag sa lokal na telepono. Kaya inirerekomendang alamin muna nang mabuti ang singil para rito dahil ang mga singil para dito ay nakabatay sa bansang tatawagan at sa service provider. Sa pangkalahatan, ganito ang pagtawag sa ibang bansa: [international service number + country code + area code + numero ng telepono]. Subalit kinakailangan mong tangalin ang "0" na nakadugtong sa harap ng area code at numero ng telepono. Makakamura ka kung gagamit ka ng "international phone card"; i-dial ang connection number (iba-iba depende sa card) at ang card number (natatanging mga yunit ng numero para sa mga indibidwal) bago ito gamitin.

1. 국제전화하기

국제전화는 국가 간을 연결하는 통화이므로 한국 내 통화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통신사별, 나라별로 요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해당 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번호나 휴대폰 앞에 붙은 '0'은 생략하고 전화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일반적인 통신회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하면 보다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카드는 보통 접속번호(카드마다 다릅니다)와 카드번호(개인 고유번호)를 누르고 사용하면 됩니다.

Pagtawag sa Ibang Bansa mula sa Korea

한국에서 해외로 전화하기

Kategorya 구분	Paano tumawag 전화방법
Paggamit ng landline 일반전화하기	Hal.) Kapag tatawag sa bahay sa Pilipinas mula sa Korea international service number + country code (63) + area code + numero ng telepono ex) 한국에서 필리핀 집으로 전화하기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 + 국가번호(63) + 지역번호 + 해당 집 번호
Paggamit ng cell phone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Hal.) Kapag tatawag sa cell phone sa Pilipinas mula sa Korea (0908-111-1111) international service number + international code (63) + 908-111-1111 ex) 한국에서 필리핀의 휴대폰 0908-111-1111으로 전화하기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 + 국가번호(63) + 908-111-1111
Paggamit ng international phone card 국제전화카드 전화하기	1. Pindutin ang connection number (iba-iba depende sa card) 2. Pindutin ang numero ng card at ang # button. 3. Pindutin ang numero ng tawagan mo (international code + area code (alisin ang "0" na nasa unahan ng numero) + numero ng telepono at saka pindutin ang # button 1. 접속번호(카드마다 다름) 누름 2. 카드번호와 #버튼 누름 3. 상대방 번호(국가번호 + 지역번호(맨 앞 0 제외) + 전화번호)와 #버튼 누름

2. Transportation Card

Kapag sasakay ng bus, subway o taxi sa Korea, maaari kang magbayad gamit ang cash o kaya nama'y transportation card (prepaid card at charge credit card). Ngayon, maaari na ring gamitin ang transportation card para sa pagsakay sa mga bus, tren, subway, at highway sa buong bansa. Ang mga pinakakilalang transportation card ay ang "Tmoney" at "Cashbee," na maaaring bilhin at load-an sa subway stations, convenience stores, at mga tindahan sa bangketa.

2. 교통카드

한국에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교통비를 내도 되지만 교통카드(신용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발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 기차, 지하철, 고속도로 등에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통카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티머니 카드, 캐시비 카드로 지하철역, 편의점과 가판점에서 살 수 있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Tmoney transportation card
티머니 교통카드



Cashbee transportation card
캐시비 교통카드

Saan maaaring bumili ng transportation card 교통카드 구입처

- Tmoney : 29,060 convenience stores at 6,107 tindahan
www.tmoney.co.kr
- 티머니 : 편의점 29,060개소, 가판점 6,107개소
www.tmoney.co.kr
- Cashbee : 23,727 convenience stores at 10,600 tindahan
www.cashbee.co.kr
- 캐시비 : 편의점 23,727개소, 가판점 10,600개소
www.cashbee.co.kr

Paggamit ng transportation cards ng mga bata at teenagers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하기

Kinakailangang iparehistro ng mga bata at teenagers ang kanilang petsa ng kapanganakan sa convenience store o sa pamamagitan ng website sa loob ng 10 araw matapos palitan ang card ng card para sa bata o teenager upang makatanggap ng diskwento.

➔ Nagbabayad ang mga kabataang nasa edad 13~18 taong gulang ng "teenager's fee," at nagbabayad ang mga batang nasa edad 6~12 taong gulang ng "children's fee."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편의점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변경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18세, 어린이 요금은 만 6세~12세에 적용됩니다.

3. Wikang Koreano at ang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1. Pag-aaral ng wikang Koreano

May iba't ibang lugar sa Korea para makapag-aral ng wikang Korcano ang mga dayuhan. Isaalang-alang muna ang oras at gastusin bago pumili ng alinman sa mga community center ("jumin center") sa iyong lugar, community welfare cent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t university language schools. Isang paraan din ang pag-aaral sa bahay, subalit kumukuhang ng klase sa pamamagitan ng Internet ang karamihan. ① Nagbibigay ang EBS Durian (www.ebs.co.kr/durian) ng klase hindi lamang sa wikang Koreano kundi sa ibang wika rin, at ang ② 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gdang.org) ay mayroong hanggang anim na "Sejong courses" at nagtuturo ng wikang Korcano sa iba't ibang wika gaya ng Chinese, Vietnamese, Filipino at Cambodian.

3. 한국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알아보기

1. 한국어 공부하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많습니다. 거주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교 어학당 등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따져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① EBS 두리안(www.ebs.co.kr/durian)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도 배울 수 있으며, ②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gdang.org)에는 세종한국어 1~6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Website ng EBS Durian EBS 두리안 홈페이지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 될 안산시 지역정보 여기!'

안산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보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꼼꼼히 알아보고 이용하면 도움이 될 내용이 많다.

#안산시민시장 5일장 한시 운영중단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안산시민시장 5일장을 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한다.

안산시는 당초 2월 5일까지 중단해줄 것을 상인회에 권고했으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안산 시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시장 5일장은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무방비 상태로 접촉하는 특성 탓에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 운영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안산시는 아울러 단원보건소 및 단원구 환경위생과를 통해 시민시장 내 점포 소독과 식품취급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시행하며, 상인 및 이용객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감염증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안산시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관내 신혼부부 415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확대

안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종을 화물차와 버스까지 확대한다.

안산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원하는 최대 보조금을 도내 다른 시? 군보다 100만원 더 많은 1천420만원으로 정하고 지원 차량수를 늘리는 한편,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화물차와 버스 구입 보조금을 처음 시행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총 46억 원으로 승용차 249대(최대 1천420만원 지원), 화물차 19대(최대 2천700만원 지원), 버스 3대(1억6천만원 지원) 등 총 27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전제 지원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해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 판매사가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환경정책과(031-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보건정보 ไม่มี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ไวรัสCorona ใหม่! Gyeonggi-do,ผลิตสื่อส่งเสริมหลายภาษา'การป้องกันCorona ใหม่'สร้าง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ใน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



ด้วยcoronavirus ใหม่ทั้งประเทศกำลังจ่ออยู่กับการป้องกันในหมู่พวกเข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เพื่อนร่วมชาติ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มีความสนใจมากขึ้นนี้เป็นเพราะว่าcoronavirus ใหม่เกิดขึ้นในประเทศจีน

Gyeonggi - do และชุมชนมีความกังวลว่าจะมีช่องโหว่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แม้แต่ในประเทศจีนถึงเวลา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มากมาย

Gyeonggi-do (ผู้ว่าราชการLee Jae-myung) จัดประชุมเรื่อง'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วรัสCoronavirus ใหม่' ที่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Gyeonggi-do ในกรุงโซลอันชาน

การประชุมซึ่งจัดขึ้นโดย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6แห่งและเจ้าหน้าที่ศูนย์สุขภาพในGyeonggi-do จัดขึ้นเพื่อ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ไวรัสcoronavirus ใหม่โดยมีชาวจีนและ

เกาหลี350,000คน

Ryu-gwangyeolผู้อำนวยการสำนักเศรษฐกิจและแรงงานสำนักงานGyeonggi-do กล่าวว่า"เป็นเรื่องสำคัญที่จะต้องตอบโต้เชิงรุกในระยะแรกของไวรัสCoronavirus ใหม่"

ปัจจุบัน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6 แห่งและศูนย์สนับสนุนครอบครัวเกาหลี-ไทยในGyeonggi-do ได้ระงับโปรแกรมและการรวมตัวของชุมช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ชั่วคราว ศูนย์บางแห่งได้เข้าสู่ระบบการเฝ้าระวังที่ใช้งานอยู่เช่นการระบุตัวผู้ย้ายถิ่นฐานที่เคยไปประเทศจีนและโทรหาทุกวันเพื่อตรวจหาไข้

Jong Soon Lee หัวหน้า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ชวอนกล่าวว่า"เราปิดศูนย์เป็นเวลาหนึ่งสัปดาห์และหยุดกิจกรรมการชุมนุม"เราพยายามทำให้แน่ใจว่าผู้ย้ายถิ่นทุกคนในชุมชนเข้าใจสถานการณ์โดยการไปเยี่ยมชมสถานที่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เยี่ยมบ่อยครั้งเช่นมาร์ทและร้านอาหารปัจจุบันGyeonggi-do กำลังมุ่งเน้นไปที่กิจ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ขาย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ไวรัสไปสู่อสังขนาในท้องถิ่นบริษัทจัดจำหน่ายสื่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ขายให้กับสถานที่ก่อสร้างที่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และขอความร่วมมือเพื่อรายงานกิจ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แล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นทีในกรณีที่สงสัยว่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ฟักฝังผิดกฎหมาย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อาจ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สังเกต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ข้าพักที่ผิด

กฎหมาย

Bak-geonhui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สุขภาพอันชานกล่าวว่า"มีชาวปลอมมากมายเกี่ยวกับไวรัส"ฉันไม่โล่งใจเกินไปแต่ก็ไม่ใช้สถานการณ์ที่น่ากลัว"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พาร์คยังกล่าวอีกว่า"ไวรัสแพร่กระจายผ่านหยดน้ำดังนั้นการล้างมือจึงมีความสำคัญ"คุณควรล้างมือเป็นเวลา20-30 วินาทีแล้วไอปากแล้วคลุมแขนเสื้อ"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การพูดคุยและแลกเปลี่ยนความคิดเห็นเกี่ยวกับชาวต่างประเทศ

Oh Kyung-seok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Gyeonggi-do กล่าวว่า"ไวรัสโคโรนาใหม่มัน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เป็นนักฆ่าสามารถเกิดแพร่ระบาดของชาวต่างประเทศได้"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องกัน"

จากการประชุมGyeonggi-do ตัดสินใจใช้SNS สาธารณะซึ่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ช้กันอย่างแพร่หลายเช่นFacebook และWeChat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พฤติ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โรคติดต่อและประกาศข้อมูลใหม่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

นอกจากนี้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ผยแพร่จุดยอดโดยการส่งเสริมสื่อ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เช่น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ว็บไซต์และป้ายประกาศ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สี่ยงต่อการใช้อินเทอร์เน็ตหรือผู้ที่ไม่ได้ใช้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

Hong-donggiหัวหน้าสำนักนโยบา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จังหวัด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เราจะรวบรวมความคิดเห็นและมาตร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านการประชุมเมืองกับองค์กรเอกช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ต่างประเทศในภูมิภาค <한글 기사 10면>



임병택 시장, 코로나19 대응 "빈틈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시흥시에 방문해 코로나19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을 응원했다.

이날 진 장관을 포함해, 김희겸 경기1부지사 등은 시흥시의 대응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첫 일정으로 진 장관은 시흥시 매화동 천막시장실을 찾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매화동에 천막시장실을 만들고 일상 업무와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천막시장실에서 진 장관은 시흥시 코로나19 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주민들

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익현 시흥경찰서장, 길영관 시흥소방서장, 박명희 시흥보건소장, 윤봉한 매화동주민자치회장과 함백규 매화동통장협의회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시흥시는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 지난 9일 시흥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방역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함께한 매화동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협의회는 “코로나19 발생지역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통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

하고 있으니 곧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통장협의회를 포함해 많은 유관단체 분들이 지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후 일정으로 참석자들은 확진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임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소독과 방역을 했고 안전한 것이 확인됐으니 시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와 시흥시 지원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전문성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공개 모집했다.

이 사업은 여성새로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거나 지역 내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동아리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초기 직업 경험 제공으로 경기도와 시흥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성 신장과 실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시스템이다.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학습동아리(사업공동체)를 공개 모집하고 강사활동형, 전문기술숙련형, 공동창업형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선정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력과 숙련기회를 1년간 제공한다.

또 지역의 대표 브랜드 창출을 목표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다량 확보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 등을 거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성장(설립)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학습동아리 모집기간은 지난 14일까지 마감됐으나 다문화가족들은 눈여겨 볼 일이다.

내국인 못지 않게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 다문화가족의 취업인데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국인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한국어 학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장점에 더해 내국인 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

많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은 다문화가족 취업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다만 한가지, 한국어가 문제라는 것이다. 많은 노력으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면 여성새로일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만 하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준비해 보자.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문의는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직업교육팀(031-310-6034)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내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열악한 원룸 거주 아동 지원 시급, 다문화가족도 혜택 기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 6일 시흥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일원은 아동주거 빈곤율이 전국 1위인 지역으로서 적극적인 아동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열악한 원룸단지에 거주 중인 다자녀·한부모 가구에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조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시흥시는 2018년 정왕지역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가구의 정확한 주거실태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욕구를 파악하고 시 정책에 반영했다.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좀 더 넓은 집으로의 주거상향을 돕기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도배·장판·창호 수리서비스 등을 위한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 집중청소 및 방역 등 가사관리서비스 지원과 저장강박증·알코올 중독 등 질병대상자의 치료기관 연계를 위한 ‘시흥형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LH는 2019년에 4동 45호의 공공주택(매입임대)을 확보해 시흥시와 입주자 선정 및 리모델링 방안 등을 협의하

고 다자녀 및 한부모 가구에 조속한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주택매입, 공공리모델링 등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이 골자로,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 입주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조 및 매입임대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등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구도심의 아동과 그 가족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권리, 전학을 가야해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시흥시가 되도록 행정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취업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서 해결

“상담에서 취업 성공까지 한 번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상담에서 취업성공'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일자리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자리가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교육기간** 2020년 2월 ~ 11월(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14시 ~ 17시)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교육실
- 접 수** 전계층 구직자(1회 4~6명)/ 수시모집
- 접수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031) 310-6249, 6252
- 프로그램** 이력서작성법 및 이력서 완성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에티켓, 면접실전연습 등
구인정보 제공 및 맞춤 알선
- 문의안내** 031) 310-6249, 6252
시흥시 새재로 32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시흥시청역 3번 출구)

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상담에서 취업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시흥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담에서 취업성공'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2020년 매월 2회 새롭게 진행하는 '상담에서 취업성공'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전 계층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언제라도 취업면접이 가능하도록 이력서 작성 완성, 면접 성공을 위한 면접 에티켓, 구인정보 공유 및 알선 등 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구직자 밀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에서 취업성공'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신중년, 가사?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혼자 고군분투하거나 막연하게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취업 희망 구직자들에게 취업실전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들이 1:1 맞춤 정보제공 및 알선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맞춤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언제라도 전화(031-310-6252, 6249) 신청하거나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시흥시 '여성인턴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라면 시흥시의 여성인턴제에 참여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본부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인턴제 참가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여성인턴제는 여성 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 및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경력단절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목표로 실시되며, 올해는 80명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취업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시흥여성새일본부(031-310-6023~6037) 또는 시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털(<http://womenwork.siheung.go.kr>)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도 도시농부 도전 시민공동체텃밭 참여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0년 시민공동체텃밭 참여 희망자를 오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텃밭 대상지는 함줄 도시농업공원과 배곧 문화복합부지 2개소다.

함줄 도시농업공원 시민공동체 텃밭(100세대), 배곧 문화복합부지 텃밭나라(400세대)를 세대별 6.5㎡ 구획 기준으로 총 500세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텃밭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기한 내 함줄 도시농업공원 텃밭 교육장, 배곧 문화복합부지 관리소에 직접 방문해 운영규정 숙지와 시흥시 거주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3월 11일 운영단체 참관회에 전자추첨으로 1차 당첨자를 선정하고 텃밭운영 사전교육과 참여 서약서 제출 후 참가비를 납부하면 최종 선정자가 된다.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031-310-6215)로 문의하시면 된다.

고향의 음식이 그리운 다문화가족들도 시흥시의 시민공동체 텃밭사업에 참여해서 모국 야채 재배에 도전해 보자.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부동산 정보 多文化家族不動産情報、外國人の住宅保有現況把握強化

2月から外國人が再開發など、整備事業で不動産を取得したり、自分の土地に建物を新築、あるいは増築する場合、別途申告対象として管理される。政府は單純買賣以外の外國人不動産所有現況を正確に把握、政府政策に反映する方針だ。

政府關係者によると、國土交通部はこのような内容の不動産取引申告法施行令改正案を2月21日から施行する。

ナム・ヨン우國土部土地政策課長は、“この間外國人が住宅など不動産を買賣で取得した場合、自治体申告過程を通じて、その数と現況を別途管理してきた”とし、“しかし買賣以外の場合、外國人所有については申告過程で別途分類されておらず、總括的な外國人不動産所有現況把握が難しかった”とした。

買賣以外のケースとは、例えば外國人が保有する

土地に建物を建てたり増築する場合、再開發のような整備事業に伴い住宅で補償を受けるケースなどが該當する。

再開發は特定地域の建物などが老朽化し、人が暮すには適当ではないと判断されれば、該當地域住民の同意と地方自治團體の許可を経て、古い建物をすべて取り壊し、新しい家を建てることを指す。

政府が外國人の不動産所有現況に敏感に反應するのは、アメリカの市民權者が韓米自由貿易協定(FTA)を根據に、投資者國家訴訟(ISD)仲裁意向書を提出する事例が発生したためだ。

2013年アメリカ市民のソ某氏は再開發事業區域にある家を購入後、該當不動産を再開發組合に再び販賣する過程で、組合が提示した金額が低すぎると國際機關に仲裁を要請した。何回かにわたる協議と仲裁にも

かかわらず、ソ氏は33萬ドルで購入した家を85萬ドルで補償するという2017年ソウル市地方土地收用委員會の提案も受け入れないまま、國際紛争を起した。

政府は再開發過程で發生する紛争に関連、今後外國人の不動産現況把握をいっそう強化する計画だ。

一方昨年未基準で外國人保有國內土地面積は2億4139萬㎡(241.4km²)、全國土面積(10萬364km²)の0.2%水準だ。ソウル面積(605km²)の5分の2に該當するもので金額では29兆9161億ウォン(公示地價基準)に達する。國籍別ではアメリカが0.6%増加した1億2551萬㎡、全體外國人保有面積の52%を占める。続いて中國7.8%、日本7.6%、ヨーロッパ7.4%の順だ。

〈한글 기사 3면〉

아키오 객원기자

민주당, 다문화가족 인재 영입

원옥금 베트남교민회장 '당사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16번째 영입 인재의 키워드는 '이주민 인권'이었다. 1998년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베트남에서 이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원옥금 베트남교민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원 회장은 이주여성 긴급전화상담을 시작으로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직을 역임한 현장형 이주민 인권 활동가다.

원 회장과 민주당과의 인연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각각 문재인 캠프 여성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여성자문그룹 '여성의힘' 참여 등에서 이어졌다. 2

018년에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영입 행사에서 "첫 조국인 베트남과 두 번째 조국인 한국을 잇는 일을 원옥금님과 같은 분이 앞장 설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원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강점을 현장에서 찾았다. 원씨처럼 이주민 출신으로 다문화 인권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정의당 영입인사 이자스민 전 의원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랬다.

그는 "저는 현장에서 활동해 온 활

동가로, 이주민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 정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제는 털 외로울 것 같다"며 원 씨의 영입 사실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주민의 정치 대표성에 관심을 가지고 원옥금 회장을 영입한 민주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우리 사회 일반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씨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정책 사안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씨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여러 부처와 연결되는 종합적인 문제다"라면서 "외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씨에 이어 오는 6일 17호, 18호 복수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주까지 1차 인재 영입을 마치고 본격 '공천 모드'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지 기자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다문화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다문화 위원회를 두고 이주민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이주민 정책을 검토해 21대 총선에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중인 총선 공약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사 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

결혼이주민 대상 실질적 지원정책: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정비 ▲종합적 이주여성 지원대책 ▲고용허가제 개선안 마련 등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정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흥, 이자 차액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를 하는 다문화가정이라면 시흥시의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자 차액도 더 지원되는 등 혜택이 많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한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해 준다.

시흥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일하기 좋은
우리 지역에서
내 일을 향해
날자!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취업디딤돌 참여자 모집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며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청년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분야의 일자리 제공 (월 187만원 급여) 1:1 전담 멘토링 지원, 취업상담 등

모집기간 2020년 1월 16일(목)~2월14일(금)

참여대상 관내 거주 만39세이하 청년 (사업참여확정 후 1개월내 전입가능자)

접수방법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내 참여신청서 제출

- e-mail 접수 : shyouthjob@korea.kr
- 방문 접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시흥시 소래산길 11, 으뜸관 305호(대야동,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의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93, 3694

보다나온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법무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염병 집중 발생지역에
방문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합니다**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합니다

1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일시 정지합니다



2월 4일부터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합니다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면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타도
입국이 안됩니다

2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서와
후베이성 방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네~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중 대한민국
공관

2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합니다



후베이성 관할공관인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사증(비자)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타지역 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3 그 밖의 추가적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합니다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등

모든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의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단됩니다

3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합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열흘 전 후베이성에
다녀오셔서 입국이
안됩니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청년 일자리도 시흥에서 다문화가족도 도전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 『시흥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및 『청년 취업디딤돌』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 지역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흥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창업 3년 미만)에게 임차료, 시제품개발비, 박람회 참가비용, 사업 홍보비 등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1인당 150만원(예비 창업자는 최대 8백만 원)이내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관련 교육 및 네트워킹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3년 미만 창업자여야 하며, 관내에 주소지가 없어도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취업디딤돌』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기관에는 채용지원금을, 참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의 기회 및 1:1 멘토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흥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031-310-3692

이지은 기자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지원 다문화가족도 도움 받아요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 지원본부는 워킹맘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사업은 워킹맘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올해는 총 210가구를 지원예정인바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서 140가구,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70개의 워킹맘가구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210가구 중 140가구에 정리수납을 지원하게 되며, '정리수납 1급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들이 가구당 6명~8명씩 배정되어 사전진단·정리수납·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질 높은 명품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워킹맘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정리수납은 무료로 지원되나 수납 바구니 등이 필요한 경우엔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 031-310-6036

이지은 기자

Thông tin bất động sản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oá, tăng cường nắm bắt tình hình sở hữu nhà ở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tháng 2 sẽ quản lý riêng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mua bất động sản thông qua các dự án tái phát triển như dự án đang bào trì hay xây mới hoặc mở rộng xây dựng trên đất của riêng họ. Thông qua đó, ngoài giao dịch mua bán đơn giản thì đây còn là một phương án phản ánh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trong việc nắm bắt chính xác tình hình sở hữu bất động sả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các quan chức chính phủ, Bộ nhà đất, Cơ sở hạ tầng và Giao thông vận tải sẽ bắt đầu tiến hành thực thi thông tư đề án sửa đổi về Luật báo cáo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từ ngày ngày 21 trở đi.

Ông Young-woo Nam -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đất đai thuộc Bộ quốc thổ cho biết “Thời gian qua, khi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mua bất động sản như bán nhà, các số liệu và tình trạng được quản lý riêng thông qua quy trình khai báo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uy nhiên, ngoài giao dịch mua bán, rất khó để nắm bắt tình trạng sở hữu bất động sản nước ngoài vì quyền sở hữu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phân loại riêng

trong quy trình báo cáo”. Ví dụ về giao dịch ngoài mua bán là như trường hợp xây dựng hoặc mở rộng một tòa nhà trên đất thuộc sở hữu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đây sẽ thuộc trường hợp nhà ở được giải quyết đền bù theo các dự án bào trì như tái phát triển.

Tái phát triển là nói về việc phá vỡ cả các tòa nhà cũ, khi chúng được đánh giá là đã bị xuống cấp, trở thành một không gian sống không thoải mái cho cư dân để xây mới lại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và sự chấp thuận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hính phủ phản ứng nhạy cảm với tình hình sở hữu đất đa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là vì đã từng xảy ra trường hợp một người quốc tịch Mỹ đã gửi thư có ý định phân xử một vụ kiện tụng của Nhà đầu tư (ISD) theo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Hàn Quốc-Hoa Kỳ (FTA). Năm 2013, một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Mỹ tên là A, mua một ngôi nhà ở khu bảo trì tái phát triển, sau đó mang bán lại cho hiệp hội tái phát triển và ông ta cho rằng số tiền được hiệp hội đề nghị là quá thấp nên đã đệ đơn

trình lên cơ quan quốc tế yêu cầu phân xử.

Mặc dù đã tiến hành nhiều lần tham vấn và hòa giải, nhưng anh A không chấp nhận đề xuất của Ủy ban đất đai Seoul năm 2017 về việc bồi hoàn 850.000 đô la cho ngôi nhà mà anh ta đã mua với giá 330.000 đô la, và đã tạo ra một cuộc tranh chấp quốc tế. Từ những tranh chấp trong quá trình tái phát triển, trong tương lai, chính phủ có kế hoạch sẽ chú trọng hơn nữa việc nắm bắt hiện trạng sở hữu bất động sả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Mặt khác, tính đến cuối năm ngoái, diện tích đất thuộc sở hữu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là 241,39 triệu m2 (tương đương 241,4 km²), chiếm 0,2% diện tích đất quốc gia (10.643 km²). Nó tương đương với 2/5 diện tích của Seoul (605km²), và chiếm tới 29.9161 nghìn tỷ won (theo giá đất được công bố). Theo quốc tịch thì, Hoa Kỳ tăng 0,6% với 125,51 triệu m2, chiếm 52% tổng sở hữu nước ngoài. Tiếp theo là Trung Quốc 7,8%, Nhật Bản 7,6% và Châu Âu 7,4%.

〈한글 기사 3면〉

강혜나 기자

지역에서 돌고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



종이시루 - 1천시루, 5천시루, 1만시루 3종
※ 5만시루 2020년 발행 예정



모바일시루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400억 매출시장으로
안정적 가게 운영의 기회 창출



가맹점 WIN
소비자 WIN

소비자는 상시 5%(특별기간 10%) 할인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살림도 알뜰하게 꾸리고!



음식점



슈퍼



카페



병원



스포츠



다이어트



약국



학원



태권도



서점



미용



애견샵

시흥화폐 시루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소비

새해맞이 10% 특별할인이 진행되며 (1~4월), 이후에도 상시 5% 착한할인이 계속됩니다.

- ① 월 할인 구매한도 80만원으로 확대 (모바일, 종이시루 통합)
- ② 선물하기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 ③ 모바일시루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필수 입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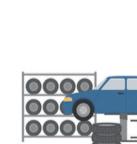
1 | 외식 |



1 | 장보기 |



1 | 건강 |



1 | 집수리, 카센터 |



1 | 학원 |



1 | 반려동물 |



1 | 쇼핑 |



1 | 운동 |



1 | 라이프 |

“ 한집 건너 한집이 시루 가맹점 ”

부천시, 외국인등록 아동 ‘보육료 지원’ 안다

외국인주민 인권과 복지 위한 부천시의 결단 놀라워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3~5세의 외국인등록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12월 장덕천 시장이 부천시주민지원센터가 개최한 제19회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한 장면, 가운데 영담 스타님 왼쪽이 장덕천 시장이다)

부천시가 이번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2번째다. 2018년에 안산시가 먼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부천 지역사회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상은 오는 3월부터 부천 내 57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아동(만3세~만5세) 330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료 2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 모두가 부천시에 체류해야 한다. 단,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부천시는 ‘부천시 외국인아동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근거로 금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덕천 시장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조성해 외국인 아동도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육료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상담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以中国, 香港, 澳门入境者为对象实行“特别入境程序”

从2月12日0时开始, 从中国、香港、澳门等地入境的韩国人必须确认在韩国的居住地和联系方式, 才能进入韩国。

韩国中央事故处理本部副部长金刚立-科罗纳当天在政府世宗大楼举行的例行新闻发布会上表示: “从当天0时开始, 香港和澳门将被包括在适用特别入境程序的地区。这两个国家作为中国的特别行政区, 与中国大陆之间的交往非常多, 最近患者发生率较高。”

从本月4日开始, 韩国将实行“特别入境程序”。该程序的内容为, 单独开设中国专用入境口, 直接确认从中国入境的所有国内、外国人的国内居住地和实际联系方式后, 允许其入境。但香港和澳门被排除在外。

在香港被确诊为“科罗纳19”的患者有49人, 1人死亡。澳门确诊人数为10人, 1人已经痊愈。

从本月11日0时至24时, 面向从中国出发的76个航班和旅客3355人实施了特别入境程序。

韩国政府还决定, 从12日开始, 在特别入境程序过程中, 为监视国内外人的健康状态, 设置手机“自我诊断App”, 加强入境后的事后管理。

在自己的智能手机上安装自我诊断app的入境者入境后最多14天内每天通过自我诊断功能输入1次发热、咳嗽、咽喉痛等感染症疑似症状。

如果该应用程序出现1个以上症状, 首先将介绍疾病管理本部1339呼叫中心和选择性诊疗所的信息, 引导其进行自发性咨询。对连续两天出现疑似症状的入境者, 将把入境信息与所辖地方自治团体联系起来, 确认是否访问选择性诊疗所。

该应用程序还与选择性诊疗所的联络方式和1339咨询呼叫中心社会关系网络服务(SNS)频道相连接, 可以消除与感染症疑似症状等相关的疑问。

该app可通过机场和港湾的招牌和特别入境申请书上的URL和QR码设置。

政府的一位有关负责人表示: “安装应用程序后, 每天都进行自我诊断, 如果连续两天检查, 就会转移到地方自治团体。这是首次适用该比率到底有多少, 因此很难预测。与1339不同, 内容将通过地方自治团体传递。”

<한글 기사 36면>

양그나 기자

성공적인 면접 위한 지원군 '부천일자리센터 동행면접'

부천시 일자리센터가 구직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부족해 면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함께 방문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해주는 ‘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면접 서비스’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 코칭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전문경력의 프로시니어가 유의사항, 기초예절 등을 알려주는 면접코칭서비스를 제공하며 면접 과정에 동행해 지원자가 대답을 못 할 경우 대신 지원자의 역량과 장점을 설명하여 성공적인 면접을 돕는다.

부천시 관계자는 “구직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면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면접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일자리센터(032-625-8431~8)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 분야별정보 > 경제취업 > 부천일자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임신부라면 누구나!

엄마와 아이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천시 임신부라면 누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 상태인 임부
※ 현재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20% 기부금 포함)
예) 4만원 상당 꾸러미 구매 시 8천원 결제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첨부서류로 이메일 제출
ecomom@korea.kr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① 신청서 1부(부천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배포용 종이를 참조)
② 임신 또는 출산 확인용 증명서류 1부(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용)

신청기간 ~2020년 12월 15일

문의처 부천시 콜센터 ☎ 320-3000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 돕기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실시



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자격 조건을 완화해 신용을 보증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남현 부천시 부시장, 강성목 하나은행 부행장, 김현주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7억 원, 하나은행은 7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해당 금액의 10배인 140억 원의 대출 보증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업자이다. 용자 한도는 업체별 3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3.7%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남현 부시장은 “부천시와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이 경기 침체와 감염증 확산까지 맞물려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7년부터 특례보증을 지속 시행해 지난 3년간 2,272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자립과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032-625-2725

이지은 기자

부천시, 시민농장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도 도시농업 참여해요

부천시가 도시농업체험장(시민농장) 참가자를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시민농장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해분양 농장은 문화동산농장(상동 529-55 일원, 영상문화단지 인근)과 소사나눔농장(옥길동 512-1 일원,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인근), 산울림농장(춘의동 343 일원, 부천산울림정소년수련관 인근) 등 3곳이다.

분양 규모는 총 700구획이며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단체·다동·도시농업공동체·케어팜(실버/복지) 회원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농장별로 뽑는 대상과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농장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

시까지,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http://cityfarm.bu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분양 대상자는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시민 농장 개장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 및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등 조정될 수 있으며 연기되더라도 참가비의 일부 환불은 불가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추첨에서 탈락한 세대는 민영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해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민영농장 정보는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 또는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032-625-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다자모음을 소개 할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만쯤 준비했어요!

<p>01</p> <p>빛그림 동화 자조모임</p> <p>10명 주 2회 / 2시간</p>	<p>02</p> <p>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p> <p>한국어 스테디 모임</p> <p>7명 주 2회 / 2시간</p>	<p>03</p> <p>손뜨개 자조모임</p> <p>10명 주 1회 / 1시간</p>
<p>04</p> <p>핸드드립 자조모임</p> <p>10명 상반기 / 주 2회</p>	<p>05</p> <p>보드게임 자조모임</p> <p>5명 하반기 / 3회</p>	<p>06</p> <p>풍선아트 자조모임</p> <p>5명 하반기 / 3회</p>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32) 327-1370

Made with MANGOBOARD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언어 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기간	연중 수시 모집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생후 30개월~만12세 미만)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2층)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아동 2명 이상」시 지원 가능 ※자정방문 불가능

준비서류 및 서비스 절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부모가 사실혼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1. 서비스신청	전화 및 내방 문의 → 평가 일정 확정
2. 초기면담 및 평가	평가(적성발달시 종료) → 대기 및 교육시작
3. 교육진행	주 2회, 회당 40분 교육 원칙(1회 6개월 진행)
4. 진전 및 종료평가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진전평가 실시 →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연장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언어교육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상담 및 평가 실시

● 현재 교육을 진행 및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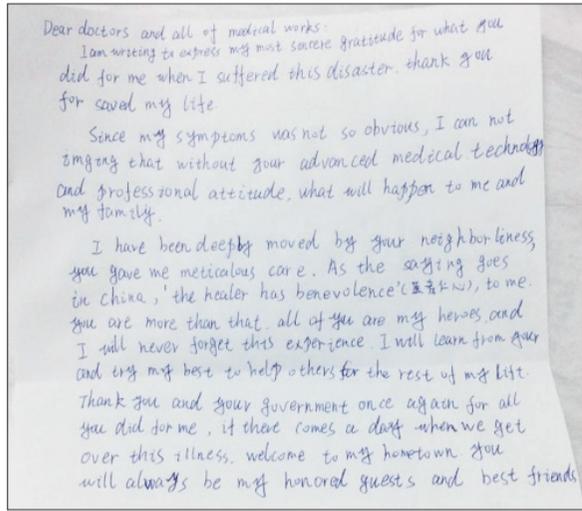
신청 및 문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68번가길 4
Tel) 070-4457-6108~9

여성가족부지원·경기도·부천시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코로나19 1번 확진자, 한국 의료진에 감사’

중국 돌아가기 전, “고통 받고 있을 때 생명 구해줘”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A(35·여, 중국) 씨가 의료진에게 쓴 감사 편지가 공개됐다.

6일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1번 확진자인 중국 국적의 A(35·여)씨는 전날 인천의료원 의료진에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A씨는 영어로 쓴 편지에서 인천의료원 의료진에게 “이 재앙 속 고통 받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고 썼다.

그는 “중국에서는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다는 뜻의 ‘의자인심(醫者仁心)’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

에게 당신들은 그 이상이었다”며 “당신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당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남은 생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A씨는 또 “당신들의 선진화된 의료 기술과 전문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자신을 치료해준 인천의료원 의료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1번 확진자는 중국 우한(武漢)에서 지난 1월 19일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다. 1월 20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 격리됐다.

인천의료원에 입원하고 3일이 지난 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발열은 10일간 이어졌다.

입원 1주일째부터는 산소까지 보충했지만 증상이 점차 호전됐다. 결국 다시 유전자증폭 검사를 한 결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이 나왔고 1번 확진자는 격리해제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조승연 원장은 “감염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조와 서로 간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됐다”며 “부족한 인력에도 휴일 밤낮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국내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중국어 38면, 베트남어 37면〉 이지은 기자

부천시,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심폐소생

부천시 공직자들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부천자유시장을 찾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장은 이날 공직자들과 부천자유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자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장 시장은 “감염증 관련 문외가 확진자 발표 당시보다 1/10 정도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며 “부천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완료해 이용에 문제가 없다”며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은 떨치시고 지역경제 소비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경제 TF팀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140억 원 특별보증 대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전통시장에서 부서 물품 구매하기·중식 이용하기 캠페인, 부천페이 인센티브 특별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지은 기자

〈한국어〉

부천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 - 부천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앞으로 다닐) 누리과정(2014~2016년생) 외국인아동
- 보호자와 아동이 부천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2020년 2월 11일부터
- 준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어요)
2. 보호자와 아동의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센터에서 신청)
4. 아이행복카드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 은행이 더 빨라요)
- 거래 은행에 외국인등록증, 사용가능한 통장 가지고 방문 신청
- 지원금액 월 24만원
- 지원기간 2020년 3월부터
- 지원방법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카드회사가 어린이집으로 입금

* 궁금한 내용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 * [아이행복카드]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호자와 아동 모두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 부천에 주소를 둔지 3개월이 안 된 경우는 3개월이 지난 다음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각 동별 주민센터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中文〉

富川市针对就学于托儿所的 外国人家庭儿童保育费支援通知

- 对 象 - 就学于富川市托儿所的外国家庭儿童。
(2014~2016年出生的外国人家庭儿童)
- 监护人和儿童须在富川市住满三个月以上。
- 申请时间 2020年2月11日开始申请。
- 提交资料 1. 社会保障津贴申请书(居民中心内备有)。
2. 监护人和儿童的外国人登陆证。
3. 外国人登录事实证明书(在居民中心内申请)。
4. 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可在居民中心或银行申请,在银行申请的话更快)。
- 持外国人身份证和可用的存折,到交易银行访问申请。
- 支援金额 每月24万韩元
- 支援期间 2020年3月开始
- 支援方法 监护人在托儿所用[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结算
→ 儿童幸福卡公司直接向幼儿园汇款。

* 若有咨询事项,可持外国人登录证到行政福利中心或居民支援中心访问咨询。

- * 只有持有[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方可得到支援。
- * 在幼儿园就读的儿童不能获得支援。
- * 监护人和儿童均应具有居留资格。
- * 在富川市居住未满3个月时,可在住满3个月后再进行申请。

※ 咨询

- 居住地所在的居民中心
- 富川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 032-327-1370

월간 아세안 업데이트 2020년 1월호

Monthly ASEAN Updates

January 2020

4. 숫자로 알아보는 한-아세안 관계

부천시,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심폐소생 전통시장 활성화 등 참여

부천시 공직자들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부천자유시장을 찾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공직자들과 부천자유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자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장 시장은 “감염증 관련 문의가 확진자 발표 당시보다 1/10 정도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며 “부천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완료해 이용에 문제가 없다”며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은 떨치시고 지역경제 소비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경제 TF팀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140억 원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전통시장에서 부서 물품 구매하기·중식 이용하기 캠페인, 부천페이 인센티브 특별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들도 코로나사태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지은 기자

2020년 시민자전거학교 모집 다문화가족도 교통안전 함께!

2020년 시민자전거학교 43기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부천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년 2월 5일 ~ 2월 26일
□신청방법 : 방문, 전화접수(070-7733-7003,5) 또는 인터넷 접수 (부천시자전거 http://bike.bu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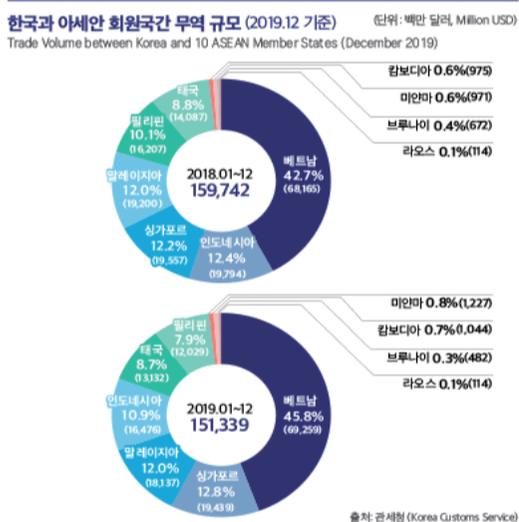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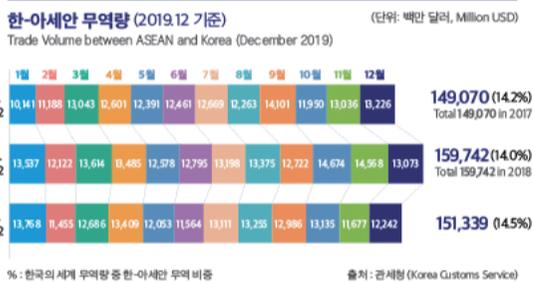
□ 교육기간 (43기)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교육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개강식 생략)
- 초급과정 : 2020년 3월 2일(월) ~ 20일
- 중급과정 : 2020년 3월 23일(월)~4월 3일
- 고급과정 : 2020년 4월 6일(월) ~ 10일

□교육장소 : 중앙공원 (30명), 남부수자원 생태 공원 (30명)

□교육비 : 무료 032-625-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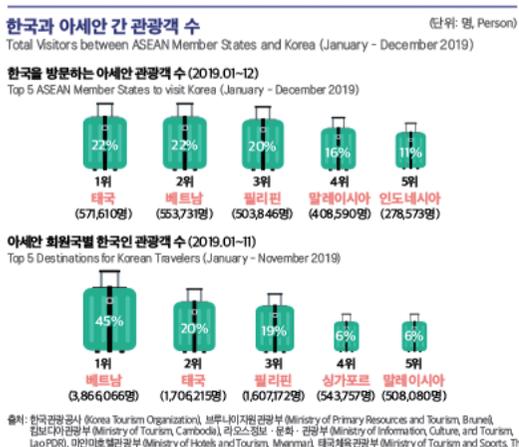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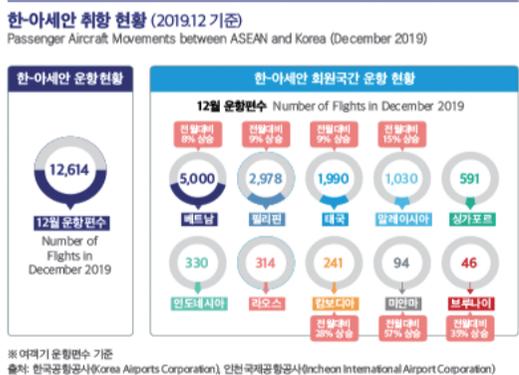
무역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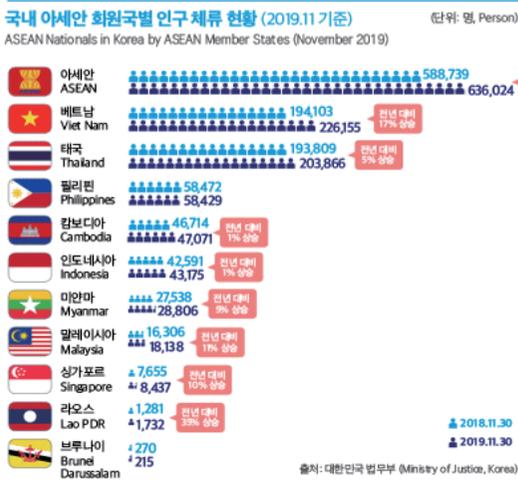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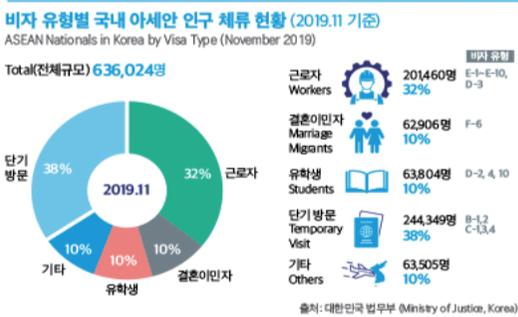
투자 INVESTMENT



관광 TOURISM



인적 교류 PEOPLE-TO-PEOPLE EXCHANGE



디딤씨앗통장 적립 아동 모집

아이들의 두 배의 희망을 위한 나눔



부천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적립 아동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아동명의로 저축을 하면 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5만 원까지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아동은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지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아동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가 되면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심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아동 120여 명에게 월 1만 원씩 후원을 연계할 수 있었다”라며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후원금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가능하다. 법정기부금이라도 개인기부자의 경우 10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관련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에 문의하면 되며 후원신청 및 문의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전화팀(032-625-3905)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작품 활동할 해외작가 모집

'2020 부천 레지던시 프로그램 추진'

부천시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4~6주간 운영하는 '2020년 부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해외 작가를 모집한다.

동아시아 최초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부천시는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문학 창의도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작가를 초청해 부천시를 국외에 알려 부천의 문화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작품을 한 권 이상 출판한 해외 작가만 참여할 수 있으며, 2명의 아티스트가 한 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문학에 국한하지 않고 만화·번역·그래픽 노블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주거

및 창작 지원금이 지원되며 부천시청 또는 부천역 인근 주택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작가는 부천문학창의도시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https://blog.naver.com/bucheon_unesco) 2월 28일까지 이메일(sunmin091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부천과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산업전략과 창의도시팀(032-625-9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수칙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202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 발열
- 폐렴
-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금지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발생 시

-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120)

게시일: 2020.1.28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양성과정 지원자,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자 모집으로 더 행복한 오산 가족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아이돌봄 양성과정 지원자와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다.

아이돌봄 양성과정 지원자 모집

2020년 25기 아이돌봄 양성과정 지원자는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아이돌봄 프로그램은 젊은 인구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의 시간외 근무 또는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해 현재의 보육시설로는 탄력적인 지원이 어려워 양육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육아전문인력으로서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오산시민 중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 15명을 선발하며 센터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육아 및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은 아이돌봄 및 육아 전문가로서 자질, 인성, 활동범위 등 이용자 가정 돌봄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며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자 모집

경기육아나눔터는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적인 육아 돌봄 공간이다. 또한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

고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오산시의 경기육아나눔터는 1호점(삼미16단지 1608동 1층, 내삼미로 109), 2호점(누읍동 휴먼시아 111동 1층, 누읍로 20)이 있으며 매주 월, 수, 금 10시~18시와 화, 목 10~20시에 운영된다.

가족품앗이는 2가정 이상(부모-자녀)이 1팀으로 결성되며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한다.(6개월간 3만원의 활동비 지원)

또한 육아나눔터에서는 도서, 장난감,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 아동미술, 요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 및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품앗이는 2가정 이상 결성되면 간단한 교육 후 품앗이로 활동할 수 있으며, 월 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며 “경기육아나눔터는 이용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70-4336-1400 송하성 기자

Để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virus corona mới với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Virus Corona chủng mới đã khiến người dân cả nước tập trung vào việc phòng ngừa nó. Trong số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hững kiều bào đến từ Trung Quốc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quan tâm nhiều hơn. Bởi vì Trung Quốc là nước đầu tiên xuất hiện virus Corona chủng mới, và cũng là nơi có số lượng người lây nhiễm lớn nhất thế giới. Tỉnh Gyeonggi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ang lo lắng không biết có để sót lỗ hổng nào không. Không chỉ Trung Quốc mà cũng cần quan tâm cả tới những cư dân nước ngoài thường xuyên phải đi công tác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Chủ tịch Lee Jaemyung) sáng ngày 7 vừa qua đã tiến hành cuộc họp bàn về việc “thông báo và chính sách quản lý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hời kỳ chủng virus Corona đang bùng phát” tại trung tâm chi viện hỗ trợ nhân quyề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tại Ansan (Giám đốc Oh Kyungseok).

Cuộc họp có sự tham gia của 6 trung tâm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quan chức trung tâm y tế của tỉnh Gyeonggi, đồng thời để nỗ lực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virus Corona chủng mới tỉnh đã có con số thống kê khi tiến hành điều tra được 350.000 người Trung Quốc và Hàn kiều để có biện pháp ngăn chặn sớm nhất của sự lây lan.

Ông Ryu Gwangyeol giám đốc sở Lao động Kinh tế cho biết “Virus Corona chủng mới có sức lan truyền mạnh, vì vậy điều quan trọng là phải chủ động ứng phó sớm” và “Tôi muốn nghe phương pháp mà mỗi trung tâm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thực hiện và những đề xuất để có thể ứng phó hiệu quả với vấn đề này”.

Hiện tại, 6 trung tâm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hầu hết cá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ủa tỉnh Gyeonggi đã tạm thời đình chỉ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và các cuộc họp mặt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Một số trung tâm đã thành lập một hệ thống giám sát tích cực, họ điều tra về những

người dân nhập cư đã có lịch sử đi lại tại Trung Quốc và hàng ngày gọi điện kiểm tra tình trạng thân nhiệt của người đó xem có bị sốt không.

Ông Jong-Soon Lee, giám đốc trung tâm phúc lợi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Suwon cho biết rằng “Chúng tôi đã đóng cửa trung tâm và ngừng việc tập hợp nhiều người một chỗ trong một tuần nay” và “thông qua các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và SNS, chúng tôi đã chuyển đến từng tổ chức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từng quốc gia những nội dung quan trọng nhất, nhưng có một điều chắc chắn là không thể tránh được hết các điểm mù. Chúng tôi cố gắng để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rong cộng đồng hiểu rõ tình hình bằng cách trực tiếp đến những nơi mà người nước ngoài thường xuyên tới như quán ăn, nhà hàng, vv để đưa cho họ những tờ thông báo phòng tránh dịch”

Hiện tại tỉnh Gyeonggi đang tập trung đẩy mạnh các hoạt động truyền bá về việc phòng ngừa và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virus tới cư dân địa phương.

Tại những nơi có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hư các công trình xây dựng tỉnh tiến hành treo các biển thông báo, đồng thời yêu cầu họ hợp tác trong việc nếu nhìn thấy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các triệu chứng đáng ngờ thì phải ngay lập tức thông báo cho cơ quan chức năng biết. Trong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người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có những triệu chứng đáng ngờ, để họ không phải trốn tránh việc tới các trung tâm y tế để thăm khám thì tạm thời đã miễn bỏ việc thông báo với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Park Kon-hee Giám đốc Trung tâm Y tế thành phố Sangrok thành phố Ansan cho biết rằng “Hiện nay có rất nhiều tin tức giả mạo về virus, do đó tốt nhất mọi người nên tham khảo các thông tin từ trung tâm kiểm soát dịch bệnh và các thông báo từ văn phòng chính phủ” và “người dân chưa nên an tâm về đại dịch

đây là một tình huống khủng khiếp”.

Giám đốc Park còn cho biết thêm “Virus này lây qua nước bọt. Vì vậy việc rửa tay là rất quan trọng. Rửa tay dưới vòi nước 20~30 giây, và khi ho thì phải dùng tay áo để che miệng lại nếu ho” và “nếu như thực hiện đúng như vậy khi ho, bạn hoàn toàn có thể ngăn chặn việc lây lan cho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uộc thảo luận chỉ trích vấn đề bài trừ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tiến hành.

Ông Oh Gyeongseok, giám đốc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ằng “Virus corona chủng mới có thể kéo theo việc có ác cảm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à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và “Vi-rút mang tên ác cảm là một kẻ giết chết linh hồn còn mạnh hơn cả vi-rút corona. Do đó chúng ta cần nỗ lực phòng ngừa và phòng trừ nó”.

Theo cuộc họp của tỉnh Gyeonggi trước hết, tham gia hoạt động trang SNS mà người nước ngoài hay sử dụng như facebook, Wechat; và thông qua đó thực hiện việc tuyên truyền đến những người dân nhập cư các cách phòng chống sự truyền nhiễm của virus corona và các thông tin mới nhất theo nhiều thứ tiếng. Ngoài ra, chính phủ có kế hoạch hạn chế tối đa các điểm mù bằng cách đẩy mạnh phân phối tài liệu tuyên truyền và đăng các biểu ngữ ở các khu vự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ở các khu vực lân cận hoặc những người không có điều kiện dùng internet hay không tham gia tại các trung tâm phúc lợi.

Ông Hong Dong-ki,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tỉnh Gyeonggi cho biết “Ở những khu vực không có trung tâm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thu thập ý kiến và tìm kiếm sự hỗ trợ thông qua một cuộc họp với các tổ chức tư nhân liên quan đến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khu vực”

〈한글 기사 10면〉

강혜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시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청의 다양한 부서, 다문화가족도 기억해요

시청은 시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시청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다.

도로, 복지, 민원, 건설 등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 시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한 시는 시청에 8개국(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 등)에 47개 과(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가 있고 공무원도 2734명에 달하지만 인구가 22만명인 한 시는 5개국에 35과 그리고 1065명의 공무원이 있다. 한 해의 예산도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2조2600억원에 달하지만 인구가 적은 도시는 1조100억원에 불과하다.

각 부서의 이름은 시장님의 공약과 생각에 따라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바다가 인접한 도시에는 배를 만드는 산업을 지원하는 조선산업지원과가 있지만 다른 도시에는 없다.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시청에는 동물보호과가 있기도 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사무를 담당하는 다문화정책과와 외국인주민지원과 등이 있는 시청도 있다. 시청의 많은 부서 가운데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를 정리했다.

여성가족과

영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와 그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다문화가족과가 없는 대부분의 시군은 여성가족과 내에 다문화팀이 있어서 이곳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오산시청은 가족보육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한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민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사회복지과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일을 한다

민원여권과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민원이다. 민원여권과는 이러한 요청을 해결하고 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서류 등의 서류 발급을 해준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당연히 이곳에 들러

신청해야 한다.

청소과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제 실시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로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이다. 시청에서는 교통신호등, 시내버스 정류소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를 지도 단속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과

도시가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공원 등의 시설을 지정하는 일을 한다. 아파트나 집을 지을 때 면적이나 높이 등을 규제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등의 일을 한다. 이지은 기자

경기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모집 및 이용안내

경기육아나눔터는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적 육아돌봄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장난감과 보서를 이용하고 토레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놀이, 체험, 등하교, 예체능 취미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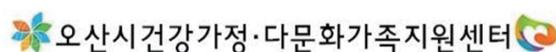
가족품앗이 모집

- 내 용 : 놀이, 학습,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품앗이 그룹 결성
- 모집대상 :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부모(2가정 이상)
- 신청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지원내용 : 활동지원비 월 3만원 지원 부모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2가정이상 결성되면 일단 연락주세요^^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안내

- 내 용 : 공간 내 장난감 및 도서이용,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
- 장 소
- 육아나눔터 1호점 : 오산시 내삼미로 109 삼미마을 16단지 주민공동시설 1층
- 육아나눔터 2호점 : 오산시 누읍로 20 누읍동휴먼시아 커뮤니티센터 1층

문 의 : 070-4336-1400 / 가족지원2팀장 원은경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25기

모집기간

-2020년 02월 03일(월) ~ 02월 21일(금) 17시
방문접수마감
-평일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00명 모집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관련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한함) 외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교육비 & 우대사항

***교육비**
-자격증 미소지자 : 20만원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활동시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 : 2만원
***자격증소지자(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자격조건 & 활동사항

-오산시 거주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최종합격 후 80시간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
-시간당 : 8,600원 (한 가정에 아동 2명 활동 시 12,900원)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가입
-활동장소 : 이용자 가정(이용자와 협의 가능)
-우대사항 : 경미한 장애로 인한 복지카드 소지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osan.familynet.or.kr>)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 031)378-9769, 9765



가족의 소통과 행복, 이중언어에서! 파주건가다가,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실시

한국 사회는 인지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소 생소했던 다문화가족들이 어느새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이 되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 파주건가다가)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이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고민상담 등 이중언어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 관심을 얻고 있다.

파주건가다가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총 23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160여 가지의 교재교구를 만들고 가정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이중언어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회를 얻었다.

2020년에도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 활용 및 가족코칭 등 총 4가지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펼친다.

3월에서 11월까지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을 6그룹 30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부모코칭 10회기,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10회기, 가족코칭(자율운영)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의 언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위한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다채로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부모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확대해 왔다”며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중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 하면 된다”고 말했다. 031-949-9161~4 (이중언어코치)

송하성 기자

파주시,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사업 공모

파주시가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0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남북교류에 대한 참신한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시 남북교류의 영역을 한층 넓힐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별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사업범위가 파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2월 17일부

터 27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http://www.paju.go.kr>) 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파주시 평화협력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록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 차원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정사업은 3월 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 남북협력팀(031-940-2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파주시 중앙도서관,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자몽' 모집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다양한 활동으로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자몽’ 7기를 모집한다.

‘스스로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원봉사동아리 자몽(自夢)은 2017년 3월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청소년이 주체가 돼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며 6개월 단위로 새로운 학생들과 뜻 깊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자몽 7기는 ▲어린이 대상 그림책 읽어주기 ▲청소년 컬렉션 도서 추천 ▲보드게임 행사 동아리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총 35명을 모집한다. 동아리 참여 청소년들은 정해진 분과에서 또래와 함께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동아리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13일 오후 6시에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aju.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윤명희 파주시 중앙도서관장은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 자몽은 지역 기관과 청소년들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940-5656 이지은 기자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다문화가족 도전

파주시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청년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만18세에서 만39세까지의 파주시 미취업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역 내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기업에게는 매달 18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청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을 통해 총 31명의 청년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청년 모집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koallala@korea.kr)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후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후에는 지자체, 기업, 청년이 삼자협약을 맺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파주시는 또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2년간 매년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청년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I. Admissions guide

: For children who were born in Korea or hold Korean citizenship

Age	Level of School
3 to 5 year olds	Admission to kindergarten [For parents to prepare] Submit application via the Go-First School website ¹⁾ (www.go-firstschool.go.kr)
	Around October - December (varies across kindergart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sit Go-First School (www.go-firstschool.go.kr) and sign up for membership. Read the application guidelines of each kindergarten. Check the corresponding kindergarten's application guidelines to find out whether it offers preferential enrollment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mit application and get a filing receipt (can be printed). Check the lottery results and register your child. Attend orientation, preliminary convocation, etc.
	January -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 Register for additional admissions and check the results. - Register for kindergarten. - Attend orientation, preliminary convocation, etc.
6 to 11 year olds	Admission to elementary school [For parents to prepare] Receipt of school attendance notice and individual preparation for entrance into the school
	Until December 20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date of entrance fa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eive a school attendance notice from the head of the eup, myeon, and/or dong with jurisdiction (Specifying the school to attend and the date of entrance). The head of the Eup/Myeon/Dong will prepare a list containing the student'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and the guardian's name, date of birth,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and notify the head of the school to which the child is going to enter. School attendance notices are not issued for students with a foreign nationality.
	January -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 Preliminary convocation: Enrollment guidance
12 to 14 year olds	Admission to middle school [For parents to prepare] Nothing (Elementary schools will carry out al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nd documentary work)
	Mid-January - Middle school assignment (lottery system)
	Late January - Students are notified of their assigned schools, preliminary convocation
15 to 17 year olds	Admission to high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eral high schools (including autonomous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international, science, art, and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vocational (occupational), vocational (alternative), Meister high schools Other schools: schools for gifted children Admission procedures and application date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high school and city/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Need to check the "Information on high school admissions" website (www.hischool.go.kr).
	Mid-February - Application for re-assignment, additional assignment, class placement test
	Mid- to late February - Notification of additional assignment results
18 and over	University

1) If you are unable to use the kindergarten enrollment management system "Go-First School (www.go-firstschool.go.kr)", you can pay a visit to the kindergarten in person instead to submit your application.

4

01 Kindergarten admissions guide

Types of kindergartens

- **National kindergarten:** A kindergarten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state
- **Public kindergarten:** A municipal or provincial kindergarten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 **Private kindergarten:** A kindergarten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Target children

Children aged 3 and above are eligible to enter kindergarten before they enroll in elementary school.

Time of entry

- **New semester admissions:** The school year runs from March 1 to the end of February the following year, and entrance to kindergarten generally takes place in March.
- **Mid-year admissions:** As mid-year admissions may be permissible depending on the kindergarten's circumstances, contact the kindergarten to find out if your child can be admitted.

Admissions procedure

The entire admissions process, from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to registration, is conducted through the Go First School website (www.go-firstschool.go.kr), a kindergarten enrollment management system



Tips

To find kindergartens in your neighborhood

- Information on kindergartens by region can be viewed online through the website of the kindergarten enrollment management system (Go-First School) or the Kindergarten Notification website. In addition to general information on kindergartens by region, you can also learn about the dates and methods of entry and their curriculums.
 - **Go-First School** (www.go-firstschool.go.kr): A kindergarten enrollment system that allows parents (or guardians) who seek for their child to enter kindergarten to conveniently search online for information on kindergartens, file an application, and view the results.
 - **Kindergarten Notification** (e-childschoolinfo.moe.go.kr): Information on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kindergartens by region.
- Consider the following four factors when selecting an early-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 **[Location] A place close to home or parents' workplace**
 - If the commuting distance is long, the child may become subject to both physical and mental stress.
 - **[Educational philosophy] A place that matches the parents' educational philosophy**
 - Since the educational philosophy may vary from kindergarten to kindergarten,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type of school curriculum that is emphasized.
 - **[Facilities] A safe and hygienic place**
 - As it is a place where the child will spend more than half the day, its safety, hygiene, and spaces where activities are carried out should be closely looked at.
 - **[Teachers] Teachers with good interactive skills**
 -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have positive interactions with them.

5

Submit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kindergarten

- **Submission time**
 - Although times vary by region and kindergarten, in general, new students for the following year are recruited from October until November.
- **Submission methods**
 - There are two metho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kindergarten: **online application** and **in-person application**, and you may file applications for up to 3 kindergartens.
 - **Online application:** Parents may submit their applications through the Go-First School website.
 - **In-person application:** Parents visit the desired kindergarten to apply in person.
(Some private kindergartens accept in-person applications only)
- Applications are divided into a **priority group and a general group. As some kindergartens includ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ir priority groups, please check with the kindergarten to learn more.**
- In some cases, kindergartens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to identify whether the children 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reason, it's important that you check recruitment notices or contact the kindergarten to inquire about the required documents.

Selection and registration of kindergarten students

- The selection of kindergarten students is not conducted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If the number of applicants exceeds the available spaces, the selection is made through a lottery. The selection result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Go-First School website or communicated individually to the applicants.
- If you were not selected for any of the kindergartens that you applied for, or if you gave up your enrollment for the kindergartens that selected you, you may still be able to enroll in other kindergartens that have failed to fill all available spaces.
- Once the kindergarten enrollment becomes finally confirmed, parents (guardians) will be given detailed information through preliminary convocations or orienta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kindergarten admission.

Preparation for entrance

- The preparation for entrance can be divided into things for parents to prepare and things for parents to do for their child.
 - **Things for parents to prepare:** Verify eligibility to receive tuition support and prepare additional admissions documents (application for after-school courses for dual-income families or others depending on the kindergarten), photographs, certificates of vaccinations and medical checkups, and other materials required by the kindergarten, etc.
 - **Please make sure that you attend the parents' orientation before your child starts at the kindergarten to receive full guidance. It is also helpful for adaptation to become familiar with the atmosphere by visiting the kindergarten in advance with your child.**
 - **Things for parents to do for their child:** Teach your child basic safety rules, how to remain comfortable away from you (or other guardians), how to mingle with peers, basic habits (potty training and table manners), and what to be careful of when using school buses.

Note Kindergarten curriculum operation

Configuration of semesters and classes

- The school year at kindergartens is divided into two semesters.
 - **First semester:** From March 1 (as March 1 is a national holiday, classes begin on March 2) to the day set by the head of each kindergarten, considering the number of school days, the number of non-teaching days, and the curriculum operation of the corresponding kindergarten
 - **Second semester:** From the day following the final day of the first semester to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 The kindergarten curriculum runs four to five hours a day, and after-school courses consist of care services provided subsequent to the curriculum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educational policy of the kindergarten, the classes may consist of single-age classes for 3, 4, and 5-year-old children or mixed-age classes.

Number of school days and attendance

- Kindergartens are required to be in session for **at least 180 days** a school year, and the exact number of days may be specified by the head of each kindergarten at his or her discretion.

Curriculum (Nuri course)

- The curriculum of kindergartens is referred to as the **Nuri course**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s well as the proper development of children aged 3 to 5 while giving the children a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become good citizens.
- The curriculum is operated based on a yearly, monthly, weekly, and daily schedule, and the courses are adjusted based on the age of the students,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ged 3 to 5.
- The courses are centered around play, taking the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into account. They are operated in five areas (sports activity & health, communication, social relationships, art activity, and nature exploration).

Daily class schedule

- Unlike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kindergartens do not have textbook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focus on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The daily schedule includes at least one hour of elective activities and outdoor, in addition to large and small group activities (art, games, cooking, singing, etc.), and on-site experiential activities.

Daily schedule (example)		
Curriculum	09:00 - 09:10	Arrival and greetings
	09:10 - 10:10	Planned playtime and elective activities
	10:10 - 10:30	Organization and evaluation of elective activities
	10:30 - 10:50	Snack time
	10:50 - 11:10	Conversation
	11:10 - 12:10	Outdoor activities
	12:10 - 13:10	Lunch and rest
	13:10 - 13:30	Large and small group activities
	13:30 - 13:50	Large and small group activities
After-school Programs	13:50 - 14:00	Daily evaluation and return home
	14:00 - 17:00	Care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7

이웃과 함께 아는 행복한 공동육아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가구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윤정 가람마을5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꿈도담터)에서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시작된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신한금융의 후원으로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실질적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는 영유아 놀이공간을 운영하며,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들이 육아나눔터 공간에서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장난감과 도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에는 초등 돌봄 교실을 회원제로 운영한다. 파주시 거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자율독서, 숙제 관리, 자유놀이(보드게임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아동이 입퇴실 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도 3월부터 초등돌봄을 이용할 신규 상시돌봄 이용자 13명 선발을 위한 추첨도 2월 중에 진행하여 맞벌이가정 및 예비 1학년, 2학년 자녀들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시돌봄에 선정되지 않은 이용자는 긴급 일시 돌봄으로 하루 3명까지 선착순 이용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하 모 씨(윤정1동)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 항상 불안했다. 자녀돌봄사업은 하교 후 아이가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므로 마음이 된다”며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학습하니까 아이가 힘들었는데 이곳 나눔터에서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품앗이로 활동 중인 성 모 씨(윤정1동)는 “품앗이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엄마들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육아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맞벌이가구자녀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간이용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다. 자녀와의 놀이 공간이 필요한 부모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31-943-2960 이지은 기자

日 사세보시 파주시와 교류 지속

행정연수단 파주시 평생학습관 내방

파주시 자매도시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행정연수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외국어 교육 정책 연수를 위해 내방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교육강좌의 운영방식을 알아봄으로써 자매도시인 파주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평생학습관이 휴관에 들어가 예정된 ‘생활영어(초급)’ 강좌의 참관은 불가능했으나 행정연수단은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둘러보며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연수단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세보

시의 평생학습기관 ‘공민관’과 달리 100여개가 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운영규모에 감탄했으며 특히 요리실, 제과제빵실, 컴퓨터실 등 기능 관련 강의실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행정연수단은 실무진에게 수강신청 방식, 수강료, 강사채용,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평생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보였다.

마츠이 테츠로(松井 哲朗) 사세보시 사회교육과 주사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규모와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 놀랐다”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즐기는 사세보시의 공민관은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자동차 보조금 받아요

신원경 자동차 · 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 예택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소연료전지차 10대(3억 2천 5백만원 규모)와 전기자동차 212대(3,002백만원 규모, 승용 및 초소형 198대, 화물 14대), 전기이륜차 약 30대(69백만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공고일 전일(2020년 2월 6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판매 대리점은 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a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보조금 신청은 2월 11일 9시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2월 12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

할 수 있고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3,250만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수소연료전지차(승용), 전기자동차(승용)를 구매한 경우 200만원의 추가 정액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다.

*수소연료전지차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지차 *전기자동차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대창모터스 다니고 ▲세미스스코 D2C

이지은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다문화 교류 소통 '다가온(ON)' 으로 다가와요

군포다가, 찾아오는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교육

체 험 내 용

다문화 이해 교육 - 국가별 문화 소개 → 다문화 활동 만들기 → 12개국 다문화 전시 관람 → 다문화 의상체험 놀이 공간 체험 → 포토존 사진촬영

대 상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 누구나 (개인 및 단체 10인~20인)

내 용 |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전시를 관람, 다문화 전통의상·놀이체험 등

소요시간 |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1~2시간 소요

체험장소 |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 다가온 (구 레인보우카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2020년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ON)'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가온(ON)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융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지난 2019년 11월 조성된 열린 공간이다.

다가온(ON)에서는 '다가온 찾아오는 다문화이해교육',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가족상담', '다문화 전시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가온 찾아오는 다문화이해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층 전시공간 관람 및 다문화 의상, 놀이체험과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및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원하면 1회기 당 10~20명의 인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은 중국, 일본, 베트남 3개국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인들과의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 및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 취미 자조모임'은 동화구연과 뜨개질을 통한 교육, 취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다문화, 비다문화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함께 문화 및 관심사를 나누며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프로그램이다. '가족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문상담사가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 시민들의 상담(031-392-1814)을 지원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다가온(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군포시민은 센터 홈페이지(<http://gunpo.family.net.or.kr>) 또는 전화(센터 031-392-1811, 다가온 070-4279-4079)로 안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층 전시공간 관람, 다문화 의상, 놀이체험은 열린 공간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점심시간(12:00~13:00)과 일, 월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다(多)재다능 군포다가 '마음 속! 꿈속!' 모집

202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마음속! 꿈속!'

마음속!꿈속!은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속! 꿈속!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센터방문/상담 및 신청

- 부모자녀관계향상
- 사회성발달
- 미래설계
- 부모님과 함께 하는 만들기 및 체험 활동
- 사고력보드게임/신체놀이/제과제빵
- 진로체험/창의과학/로봇과학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마음 속! 꿈속!' 참여자를 모집한다.

'마음 속! 꿈속!'은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 및 체험 활동 등 '부모자녀관계향상', 사고력 보드게임, 신체놀이, 제과제빵 등 '사회성 발달', 진로체험, 창의과학, 로봇과학 등 '미래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 1~5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정 대상이며 2월 17일 이후 방문 신청받는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제과제빵 활동은 3월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1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영양교육도 5월과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392-18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ов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короны!

Усилена реклама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ы», включая Я Кёнги-до и многоязычные рекламные материалы

С новы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ся страна 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на обо роне. Среди них больш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иностранцы и соотеч ественники из Китая.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новыйкоронавирус возник в Китае, а б ольшин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 в Китае. Кёнгидо и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 тво обеспокоены профилактикой глаголов. В Китае также наст упила время уделять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и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Кёнгидо (губернатор Ли Чжэ-мён) провел «Новые меры по с 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управл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о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ино странцев Кёнгидо в Ансан, Корея.

Совеща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ше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центров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медици нского центра в Кёнгид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для изучения усилий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с участием 350 000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РюгванЁл, директор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 м, провинци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Кёнгидо, сказал: «Важно замети ть, что новый коронный вирус был сильным и активным на ран них стадиях» также «Я хотел бы услышать, как работает каж дый иностранн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центр, и предложить эфф ективные ме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 сказал о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шести зарубежных центрах социально 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большинстве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подд ержки семьи в Кёнгидо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образовате

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и собр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общин.

Некоторые центры ввели активную систему эпиднадзора, н апример, выявляют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Китай, и еже дневно звонят,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нет ли температуры.

Ли ЧонСун, глава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уво на, сказал: «Он закрывается на неделю и 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обран ие людей» также «Мы продвигаем важные материалы через ц ентры и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каждой стране, но это правда, что существует слепая зона» подтвердил он.

«Мы пытаемся убедиться, что все мигранты в сообществе п онимают ситуацию, посещая места, где размещены многие ин остранны, такие как киоски и ресторан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ёнгидо занимается профилактикой и п ропагандой,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ср ед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мп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яет реклам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контра кта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де работает мног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 ников, и просит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оператив но сообщать о спонтанны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лучае подозреваемых нелегалов, он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уведом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властей, чтобы они не возража ли против пос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отому что он и боялись, что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властям.

Пак Кун Хи , глава Цен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нсан-си, сказа л: «Есть так много поддельных новостей, связанных с вирусам и. Я бы порекомендовал вам обратиться к информации о лент

е департамента болезне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же он подтвердил «Вирус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и через капл и. Поэтому важно мыть руки. «Вы должны мыть руки в течение 20-30 секунд, кашлять в рот и прикрывать его рукавой». «Есл и вы будете хорошо держать кашель, профилактика будет воз можна», - сказал он.

Были также дискуссии о ксенофобии.

ОКён Сок,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ёнг идо, сказал: «Новый вирус короны мож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непр иятие у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же «Вирус отвращение - более сильн ая причина души, чем вирус короны. Для защиты и профилакт ики нужно стараться» указывал о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тречи Кёнги-до сначала использует sns, используемую иностранцами, такими как Facebook и WeChat, че рез общую систему для каждой страны. Они решили призвать огласить Закон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ан Янга-Бён и быстро распро странять 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ах.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слеп ые зоны, распространяя реклам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размещая ба ннер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Хон Донг Ги глава отдел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 и, сказал: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искать мнения и поддержива ть меры посредством городских встреч с час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 ями, имеющими отношение к иностранным регионам в регионе ».

〈한글 기사 10면〉

샤르비노즈 기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중국



일본



베트남

대상 | 모국인들과의 자조활동을 원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이주여성

모집인원 | 1팀(국가) 당 10명 이상 모집

활동기간 | 2020년 2월~12월, 월 1회 이상(11회)

활동내용 | 월 1회(2시간), 참여자가 주도하는 자조활동으로 활동 내용 및 방식은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취미, 육아, 교육, 등 자유주제)

활동장소 |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층
다가온(구 레인보우카페)

문의사항 | 센터/031-392-1811

다가온/070-4279-4079

담당자 : 가족지원 3팀 전 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M SCHOOL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중국어)”

센터에서는 “MOM SCHOOL”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부모 출신국(중국)의 이중언어 교육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에 필요한 언어능력 향상과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7일 ~ 모집 마감까지
- ▶ 대상 : 군포시 거주 다문화 아동20명 (초등학교 재학 아동 우선)
- ▶ 기간 : 2020년 3월~11월, 협의 중
- ▶ 장소 : 센터(수리산 상상마을) 혹은 군포초등학교 (화/목 14:00)
- ▶ 내용 : 중국어(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 이해)
- ▶ 신청방법 : 센터 전화 및 방문 (* 수강신청서 양식 작성)
- ▶ 문의 : 가족지원 3팀 (031-392-1811) 박은숙
*위의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걸음 성장 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수준을 검사하고 언어발달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	▶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 근로자 및 새터민 자녀			
장소	▶ 센터 내 언어지도교실 ▶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평가 및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 * 가정방문 불가			
비용	무료(국비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 평가	언어영역 및 연령별 언어발달수준 체크	언어발달 지도	언어발달촉진, 발음, 읽기-쓰기 지도
	평가방법	부모(주양육자)상담 후 표준화 된 검사도구로 언어검사	교육시간	주2회(1회당 40분)
	교육형태	개별수업(1:1 지도) 모둠수업(2인 이상 지도)	교육기간	6개월 ~ 2년
신청방법 및 문의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31-395-1811, FAX: 031-392-1813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언어치료 배우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경우)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 (언어평가 실시는 가능)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TIẾNG VIỆT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OÁ SỨC KHỎE GIA ĐÌNH THÀNH PHỐ GUNPO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miễn phí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hay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phát sinh khi mới nhập cảnh,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và cuộc sống sinh hoạt.
Rất mong được nhiều sự quan tâm của mọi người.

NGÔN NGỮ : Tiếng Việt

(Ngoài tiếng Việt, để đáp ứng nhu cầu của mọi người trung tâm có hỗ trợ thêm các ngôn ngữ khác thông qua kết nối với các trung tâm khác)

NỘI DUNG DỊCH VỤ

- Hỗ trợ thông dịch về sự khác biệt giữa văn hóa, sinh hoạt, giao tiếp trong gia đình khi mới nhập cảnh.
- Hỗ trợ định cư cho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thời gian lưu trú... Hướng dẫn tìm việc làm.
- Hướng dẫn các thông tin về đời sống sinh hoạt như mag thai, sinh con, nuôi dạy con... Tư vấn về giáo dục
- Hỗ trợ khi sử dụng thông, biên dịch tại cơ quan tư pháp, hành chính, bệnh viện, trạm y tế, sở cảnh sát, trường học và các cơ quan công cộng

ĐỐI TƯỢNG :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cư trú ở thành phố GUNPO

HÌNH THỨC ĐĂNG KÍ

- Hẹn trước
- Từ thứ hai đến thứ sáu 9h-6h
- Điện thoại đăng kí hoặc trực tiếp đến trung tâm

TƯ VẤN :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OÁ SỨC KHỎE GIA ĐÌNH THÀNH PHỐ GUNPO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Tel. 031-392-1811 Fax. 031-392-1813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ut Troubles-Pain, Gassiness, Bloating, and More

다문화가족 건강정보, 장 트러블의 원인과 치료 등 장 건강을 위한 조언



Everyone has pain or discomfort in their gut occasionally. Maybe you ate something that didn't agree with you. Or you had an infection that made you sick to your stomach for a few days.

But if pain and other gut symptoms go on for weeks or longer, something more serious might be wrong. Digestive system diseases and disorders are very common. Around 60 to 70 million people in the U.S. live with a digestive disease.

It's important not to ignore symptoms in your gut. Many digestive disorders are easiest to treat when they first develop.

Potential Causes

One of the most serious gut disorders is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although it's not very common. IBD occurs when immune system cells in the gut overreact to a perceived threat to your body. Often, that "threat" is the normal bugs that make up the microbiome—the microscopic creatures like bacteria, fungi, and viruses—that live in your gut. This overreaction can damage the digestive (gastrointestinal or GI) tract.

The two main types of IBD are ulcerative colitis and Crohn's disease. "Crohn's can occur anywhere in the digestive tract, from the mouth to the anus," says Dr. Judy Cho, an IBD expert at Mount Sinai. Ulcerative colitis happens only in the large intestine.

These two diseases also differ in how deeply they can damage tissue. "Ulcerative colitis causes damage in the gut lining," explains Dr. Dermot McGovern, who studies IBD at Cedars-Sinai. "Crohn's disease can go all the way through the gut." Severe cases of Crohn's can lead to narrowing of the intestines and even holes in the gut.

Other conditions can harm the lining of the stomach and lead to a type of inflammation called gastritis. The most common cause of gastritis is infection with bacteria called *Helicobacter pylori*. Other causes include the long-term use of some pain medications. If left untreated, gastritis can lead to painful ulcers.

Twelve percent of people in the U.S. have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This is a very common disorder. It's characterized by abdominal pain, bloating, and changes in bowel habits," says Dr. Anthony Lembo, an IBS researcher at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Researchers don't understand exactly what causes IBS. It may have different causes in different people. Sometimes it involves problems with how the brain and gut work together.

Other things that can cause pain and discomfort in the GI tract are acid reflux or food sensitivities.

Pinpointing the Problem

It can be tricky to diagnose a digestive disease because they share a lot of symptoms, explains Cho. Symptoms of many gut conditions include pain, gassiness, bloating, and diarrhea.

"But for IBD, there are several red-flag symptoms," she says. These are blood in the stool, weight loss, and signs of inflammation found in a blood test. A sign of IBD in children is failure to grow, Cho adds.

IBS can give some people diarrhea and others constipation. Some people go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Gastritis and food sensitivities can also cause long-term gut discomfort. To figure out what's causing gut troubles, doctors may need to run a variety of tests. These can include blood tests and a stool test to look for infection.

Some people may have an imaging test, such as a CT scan. Others may need to have an endoscopy. Endoscopy uses a long, flexible tube with a tiny camera on the end to look in the intestines or stomach.

Treating Pain and Discomfort

While symptoms for different gut disorders can be similar, treatments vary widely. For gastritis caused by bacterial infection, antibiotics are used to kill the germs. If medications are causing gastritis, switching to a different kind of drug will usually allow the stomach to heal.

Food sensitivities can be managed by changing your diet. A nutritionist can help you figure out what foods might be irritating your gut. Acid reflux can also often be improved by changes in your diet and medication.

Treatment isn't one-size-fits-all for IBS, Lembo explains, because it can have different causes. Some people can get some relief by adjusting their diet. (See the Wise Choices box for foods that can trigger gut symptoms.)

"We also tell patients to eat two to three meals a day, maybe have a snack or two. But don't eat all day

long. Give your gut a chance to rest," he says.

And while stress doesn't cause IBS, it can trigger flare-ups of symptoms in many people, says Lembo. Stress reduction strategies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a type of talk therapy—can help some people manage symptoms of IBS.

IBD is harder to treat than most gut disorders. "It's impossible to cure IBD right now," says Cho. Treatments focus on stopping inflammation long enough to allow the gut tissue to heal, she explains.

Some medications used for IBD control inflammation. Other newer drugs suppress the immune system. But these newer drugs can have serious side effects and are usually only used when others don't work.

"Research has discovered that the earlier you use these medications, the more likely you are to respond," says McGovern. So, people with high-risk disease may get these drugs first now, he explains.

Looking for Better Treatments

Researchers are searching for new ways to prevent and manage gut disorders. Lembo, for example, is testing whether peppermint oil can help the gut muscles relax in people with IBS.

Existing treatments for IBD only work for about a third of people who try them. And even then, McGovern says, they may lose their effects over time.

Both Cho and McGovern are working to understand the genetics of IBD.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d at all stages of the disease, explains Cho. For example, if a test could identify children at higher risk of developing IBD later in life, "theoretically it could be prevented," she says. Strategies could include giving anti-inflammatory drugs before IBD develops or changing the gut microbiome to prevent an immune attack.

"And what we're all interested in is: Can we use some of these genetic signatures to identify new drug targets for IBD?" adds McGovern. That could also eventually help predict who would most likely benefit from a drug, he says.

One of the newest drugs being tested for IBD was based on a genetic discovery, Cho explains. "There's increasing precision in treatment," she says. "Using genetic knowledge to help choose therapies for IBD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doable in the next five to 10 years."

For now, talk with your doctor if gut discomfort or pain are impacting your quality of life. Available treatments can help most people get their insides back in order again.

NIH(News in Health), USA

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 내외국인 법무부 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

2월 12일 0시부터 중국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은 한국 거주자와 연락처가 확인되어야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됐다”며 “두 국가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자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돼 있었다. 홍콩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는 49명이며 1명이 사망했다. 마카오의 확진자는 10명이며 1명이 완치됐다.

지난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76편 기준 3355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정부는 또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하루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해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한다.

이틀 연속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연계해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 앱은 또 선별 진료소 연락처와 1339 상담콜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과도 연결돼 있어 감염증 의심 증상 등과 관련된 의문도 해소 가능하다.

이 앱은 공항과 항만의 입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과 QR 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앱을 깔고 난 후 매일 자가진단을 해 이를 연속 체크가 되면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라며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처음 적용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1339하고는 별개로 지자체로 내용이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어 22면, 베트남어 48면, 러시아어 41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 위해 광명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광명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올해는 취업하는데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광명시는 2022년까지 총 5만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민들의 취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광명시는 올해 ‘광명시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을 통해 나온 종합계획을 내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5060) 세대에 교육과 고용,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제2인생 설계와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사회공헌일자리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생태보존활동가 양성, 재해안전관리강사 양성, 갈등협상관리조성자 양성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 후에는 사후지원도 할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별 취업지원교육 강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훈련’과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으로 멀티회계사무원, SW정보화교육강사, 창의역사체험지도사, 호텔객실관리사, 취업지원전문가, 치매예방 트레이너전문가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27명의 수료자 중 100명이 취업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에는 207명이 참여해 97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중·장년, 노인,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한다.

3월 개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에도 적극 나선다. 데이터분석과를 비롯한 5개 과정 110명 모집인원 중 데이터분석과를 제외한 4개 과 최종합격자 88명 중 광명시 합격자는 34명이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형 일자리사업 추진

광명시는 올해 공공일자리를 개편해 새롭게 추진한다. 1998년부터 국비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을 전면폐지하고 광명형 공공일자리사업인 ‘광명 0123 행복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광명 0123 행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1년 동안 연속해 2단계(8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을 보완해 3년 이내에 최대 2년(연속 2단계, 10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광명시는 또한 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시설 환경정비 사업 등 60여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자 150명을 선발해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형 청년 인턴제’ 사업도 추진해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준비교육을 함께 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광명시는 미취업 청년 20여 명을 선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고 개인 역량을 키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은 올해도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안전보안관, 외국인민원 안내, 직업상담사, 청소 도우미, 말끄미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19세부터 69세까지 170여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일회성으로 끝나는 단순 일자리 지원보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도서 하면 한결문고 한결문고 하면 다문화도서

국내 최대 25개 국가 수입!
국내 최고 신청도서 납품율!
국내 최초 수입 노하우 활용!

취급품목

- 출판물(베스트셀러/전문/교육용도서/잡지)
- 교재(교과서)-학습교과서/어학교재
- 영상물(DVD)-문화체험(드라마, 영화)
- 음반(오디오, CD)

<다문화도서 구입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0-3 2층 외서팀
Tel. 032-325-4755
E-mail. hope6401@hanmail.net



다문화가족에게도 도움 되는 광명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공공형 택시, 시민생활 안전보험 등



광명시는 다문화가족 및 광명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및 공공형 택시 운행 등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양하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광명시는 (사)광명여성의전화(대표 정애숙)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 상담업무를 추가해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를 운영한다.

통합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법률, 정서, 의료, 쉼터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통합상담소는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 3층(철산동)에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전화는 02-2060-2545다. 성폭력 상담전화는 02-2616-2544며 통합상담소 이용비용은 무료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7개 마을 대상 ‘공공형 택시 운행’

광명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관내 7개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2월부터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버

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은 광명6동 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마을, 학운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로 총 7개 마을이다.

이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2회 이용할 수 있다. 택시요금 중 1회당 1,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광명시에서 지원한다. 택시 호출비용(1천원~3천원) 역시 광명시에서 지원한다.

#재난 안전사고 보상 ‘시민생활 안전보험’

광명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9종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DB 손해보험(1522-3556)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 적용기간은 2월 6일 0시부터 1년간이며 광명시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Corona19, người xác nhận số 1, nhân viên y tế là người hùng của tôi ...

Thư cảm ơn đến Trung tâm y tế Incheon 다문화가족 보건정보

Bệnh nhân A(35 tuổi, người Trung Quốc), người được xác định là ca nhiễm virus Corona 19 đầu tiên, được điều trị cách ly tại trung tâm kinh y tế Incheon, đã công bố bức thư viết gửi trung tâm y tế Incheon.

Theo Trung tâm Y tế Incheon, vào ngày 6, bệnh nhân A (35, nữ) có quốc tịch Trung Quốc, trường hợp đầu tiên xác nhận nhiễm virus Corona 19, đã gửi thư cảm ơn tới các nhân viên y tế của Trung tâm Y tế Thành phố Incheon một ngày trước đó.

Trong bức thư viết bằng tiếng Anh gửi tới trung tâm y tế Incheon, bệnh nhân A có viết "Khi tôi đang phải gánh nỗi đau vì nghịch cảnh này thì tôi muốn dùng bức thư này để nói lời cảm ơn đến các y bác sĩ, những người luôn

hết mình tận tâm vì tôi", bệnh nhân biểu lộ rằng "cảm ơn vì đã cứu sống tính mạng của tôi".

Nội dung bức thư bệnh nhân có viết rằng, "ở Trung Quốc có một cụm từ là "Bác sĩ nhân từ" (lương y như từ mẫu), có nghĩa là người chữa bệnh có trái tim. Nhưng với tôi, các vị còn hơn thế.", "Tất cả các y bác sĩ ở đây đều là người hùng trong lòng tôi, tôi sẽ mãi mãi không quên trải nghiệm lần này. Tôi đã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từ đội ngũ y bác sĩ. Sau này, tôi sẽ cố gắng để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khác trong phần đời còn lại của tôi."

Bệnh nhân A còn viết rằng "Thật khó mà tưởng tượng điều gì sẽ xảy ra với tôi và gia đình tôi nếu không có kỹ năng y tế tiên tiến và thái độ chuyên

nghiệp của đội ngũ y bác sĩ tại đây".

Bệnh nhân A cũng nói rằng muốn mời nhân viên y tế của Trung tâm Y tế Incheon - người đã chữa lành bệnh tình cho mình đến nhà chơi sau khi kết thúc cuộc khủng hoảng corona chủng mới này.

Bệnh nhân đầu tiên này là một bệnh nhân nữ, người Trung Quốc, đến từ Vũ Hán, đã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gày 19 tháng 1 vừa rồi. Đến ngày 20 tháng 1 thì cô được xác nhận là trường hợp nhiễm virus Corona đầu tiên của Hàn Quốc và được đưa vào trung tâm y tế Incheon để cách ly, điều trị. Ba ngày sau khi được đưa vào Trung tâm y tế Incheon, bệnh nhân xuất hiện các triệu chứng ho hấp và sốt kéo dài trong 10 ngày. Ở

tuần điều trị đầu tiên, cô được bổ sung oxy, nhưng dần các triệu chứng của cô được cải thiện. Cuối cùng, sau khi thực hiện xét nghiệm kiểm tra khuếch đại gen, cô đã được chuẩn đoán âm tính với Corona. Bệnh nhân đầu tiên được chữa khỏi, cô rời khỏi khu vực cách ly và trở về Trung Quốc.

Viện trưởng Cho Seungyeon nói: "Bệnh truyền nhiễm không phải là vấn đề của một quốc gia, mà là một lĩnh vực cần hợp tác quốc tế và hỗ trợ lẫn nhau giữa các nước", và "Cảm ơn tất cả các nhân viên y tế và quan chức ở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đã tận tụy điều trị cho bệnh nhân cả ngày lẫn đêm, ngay cả khi thiếu nhân lực".

〈한글 기사 24면〉

강혜나 기자



“김포 지역사외, 다문화가족과 함께 예요”

최병갑 김포시 부시장은 지난 1월 23일 구래동에 위치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옷을 함께 하며 한국어교실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 부시장과 동행한 김포복지재단 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 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도 양촌읍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밀알꿈씨’를 방문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독려했다.

이어 정하영 시장은 제17보병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

병들을 격려하고 각종근 사단장과 환담했다.

정 시장은 하루 앞선 22일 북변동 김포5일장에서 물가 모니터링 요원, 김포소비자시민모임 회원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도 벌였다.

김포복지재단도 이날 아동, 다문화, 장애인, 보훈단체, 시설 등 139곳에 설 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14개 읍면동의 700여 가정에 떡국떡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홍보 캠페인 실시

김포건가다가, 센터 이용자 및 김포시민 대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센터회원 및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개인위생수칙을 중점으로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 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착용(의료기관 방문시 필수!) 등의 내용을 김포시내 3곳에 현수막으로 게시했다.

또한 센터회원 및 다문화가정에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안내문을 다국어로 발송하

여 개인위생에 신경 쓰도록 했으며, 감염의심 발열증상이 보일 경우 김포시선별진료소인 김포보건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을 통해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중국에 다녀온 다문화가정을 파악하여 수시로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한 달간은 집합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의 집단프로그램을 잠정 연기하여 감염예방을 위해 사람 간 접촉을 멀리하고, 사정에 의해 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일지 작성과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회원들에게 전화 또는 SNS를 통해 감염예방수칙과 새로이 공지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김포보건소(031-980-5080), 김포우리병원(031-999-1119), 뉴고려병원(031-980-9114(408))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医疗人员是我的英雄.. 新型冠状病毒肺炎第19号确诊者, 给仁川医疗院的感谢信

在仁川医疗院接受隔离治疗的韩国首例冠状病毒病人A某(35岁, 女, 中国)给医疗人员写的感谢信被公开.<한글 기사 24면>

据仁川市医疗院6日称, 1号确诊患者A某(35岁, 女)前一天向仁川市医疗院医疗小组递交了感谢信。

A某在用英语写的信中对仁川市医疗院的医疗人员说: “我写这封信是为了感谢你们, 在我患病期间对我的精心照顾, 拯救了我的生命。”

他说“在中国, 有这样一句话 ‘医者仁心’, 你们是更胜于这个的”, “你们是我的英雄, 我永远不会忘记这个经历. 从你们那里我学到了很多, 在今后的余生里我将竭尽全力帮助别人。”

A某还表示: “如果没有你们先进的医疗技术和专业的态度, 我和我的家人会发生什么事情, 很难想象。”

他还表示, 希望在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结束后, 把为自己进行治疗的仁川市医疗院的医疗人员请到家里. 一号确诊者是中国武汉市今年1月19日入境的35岁中国女性. 1月20日在韩国国内首次被确诊患者, 被隔离在仁川市医疗院。

在仁川市医疗院住院3天后, 出现了呼吸器官症状, 发热持续了10天。

住院一周后, 补充了氧气, 病情逐渐好转. 结果, 在重新进行基因放大检查时, 新型冠状病毒肺炎阴性判定, 对1号确诊患者进行隔离处理后返回中国. 赵承延院长表示: “传染病并不是一个国家的问题, 而是国际合作和相互支持成为了切实需要的领域”, “对于那些虽人力不足, 却是不分昼夜专心治疗的国内所有医疗人员和公职人员表示感谢”。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시영 도시텃밭 "두배로농장" 분양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연)는 14일부터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시영 도시텃밭 “두배로농장”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대상 시영 도시텃밭은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458-8번지 약 1,323㎡이며, 1구좌(16.5㎡, 5평) 단위로 총 30구좌를 분양할 예정으로, 관내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올해 도시텃밭은 3월 중하순 경 개장 예정이다.

텃밭 경작을 희망하는 시민은 선착순으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980-5075, 5074)로 접수할 수 있으며, 텃밭 분양료는 기본 1구좌(5평)당 3만 원이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은 “시민들이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며 생산한 농산물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경기도 부천 아남과 GTX-D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정하영 김포시장은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범위 확대 최적노선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하여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3개시(하남·김포·부천)는 '가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하 'GTX-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GTX D노선'의 ▲최적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소요경비는 3개시에서 균등 분담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원활한 용역 추진과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상의 해석에 의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2030' 발표 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노선 검토' 언급과 관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하영 시장은 "GTX D노선의 완성으로 김포시와 인근 지자체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고 서로 상생하는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최대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이고 GTX D노선은 그 방법 중의 하나"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도와 시군의 각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20~50만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200대 보급에서 올해에는 4,540대 보급으로 대폭 늘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일반 4,500대, 저소득층 40대의 설치를 지원하며, 일반 가정은 1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범위도 작년에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신축 주택에 저녹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대기팀(☎980-22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2019.11.07

겨울철!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1/9

겨울철 감염병! 예방수칙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2019.11.07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11/8)이 머지않았는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초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감염병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수칙과 함께 알아볼까요?

2/9

2019.11.07

방심할 수 없는 A형간염

지난 9월, A형간염의 주요 요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된 이후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도 A형간염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감퇴,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예방수칙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않기
- 조개, 굴 등 패류는 익혀 먹기
-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 2주 이내에 환자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등은 예방접종 받기

* B형 C형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3/9

2019.11.07

겨울에도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 섭취,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겨울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4/9

2019.11.07

콜록콜록! 감기량은 달라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발열,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감염 시 유치원, 학교 등 등원·등교하지 않기
- 옷소매에 기침하기
- 38°C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하기

5/9

2019.11.07

태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주목! 홍역

홍역은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20-30대 및 접촉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38°C 이상의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의 증상으로 감기와 유사하나 흉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방수칙

- 출국 전 최소 1회 백신(MMR) 접종하기
-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옷소매에 기침하기

6/9

2019.11.07

국내 유입을 막아요! 메르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서는 낙타접촉 및 병원감염에 의한 메르스 환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감염되면 보통 2-14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예방수칙

- 중동 여행 시 낙타접촉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피하기
- 중동 여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중동 여행 후 2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기

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

7/9

2019.11.07

아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 쯤쯤가무시증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쯤쯤가무시증은 10~12월에 90% 이상의 환자가 집중하여 발생합니다.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방수칙

-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풀밭에 앉지 않고, 귀가 후에는 샤워나 목욕하기
-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8/9

김포건가다가도 함께 안 복지총회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30일 정기총회 개최



2020년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0일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직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관내 행사들이 모두 연기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문직으로써 권익과 가치를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9년도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의결, 2020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

련됐다.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와 친목도모, 사회복지사에 대한 김포시민의 의식증진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전문사회복지의 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사회복지사 소식지 및 연구지 발간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의 이병우회장(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020년 한해도 김포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안정적 창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나를 찾고 상대 아는 에니어그램

김포건가다가, 14일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월 14일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상대를 아는 에니어그램”을 주제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종사자 및 방문교육지도사, 직원 및 자원상담사 40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에니어그램 성격검사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에니어그램을 활용해 종사자 자신의 강점 및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전문상담원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에니어그램 관련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 고윤숙 상담사는 9가지로 분류한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강점과 약점,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의 소통능력을 끌어올리고 대상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천 상담 방법 등을 제시했다.

센터 측은 상담사, 방문교육지도사 및 종사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 동료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센터 이용 내담자와 대상자 서비스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ข้อมูลทรัพย์สิน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 ความเข้าใจและความจำ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ตั้งแต่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ห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ซื้อ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ผ่านโครงการพัฒนาขึ้นใหม่เช่นโครงการปรับปรุงของอาคาร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ในกรณีที่มีการก่อสร้างหรือการขายตัวของอาคารบนที่ดินของคุณรัฐบาล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ข้าใจสถานะปัจจุบันของการเป็นเจ้าของทรัพย์สิ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ถูกต้องและ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ในนโยบายของรัฐบาล

ตามที่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กระทรวงที่ดิน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จะมีผลบังคับใช้ในวันที่21

Young-woo Nam หัวหน้าฝ่ายนโยบายที่ดินกล่าวว่า“ในขณะที่เดียวกัน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ซื้อ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เช่นที่อยู่อาศัยพวกเขา“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ยกเว้นการขายการถือครองกรรมสิทธิ์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ได้แยกประเภท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ายงานดังนั้นจึ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เข้าใจสถานะโดยรวมของการเป็นเจ้าของทรัพย์สิ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กรณีอื่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การขายคือเมื่อมีการสร้างหรือต่อเติมบนที่ดิน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ป็นเจ้าของและที่อยู่อาศัยจะได้รับการชดเชยจากธุรกิจ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เช่นการพัฒนาขึ้นใหม่

การพัฒนาขึ้นใหม่หมายถึงการทำลายอาคารเก่าและสร้างบ้านใหม่โดยได้รับ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จากผู้อยู่อาศัยในท้องถิ่นและการอนุมัติ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หากพวกเขารู้สึกอึดอัดที่มีชีวิตอยู่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สื่อมสภาพของอาคารในบางพื้นที่

ความอ่อนไหวของรัฐบาลต่อการเป็นเจ้าของทรัพย์สิ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นั้น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จริงที่ว่าพลเมืองสหรัฐฯได้ยื่นคำชี้ขาดของ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ISD ภายใต้ข้อตกลงการค้าเสรีระหว่างเกาหลีใต้กับสหรัฐฯ (FTA)

ในปี2556พลเมืองอเมริกันชุมนุมร้องขอ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จากหน่วย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เพื่อซื้อบ้านในพื้นที่พัฒนาขึ้นใหม่จากนั้นขาย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ให้แก่สหภาพพัฒนาขึ้นใหม่โดยบอกว่าจำนวนเงินที่สหภาพเสนออยู่น้อยอยู่ในระดับต่ำ

แม้จะมีการปรึกษาหารือและ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หลายรอบแต่คุณชูปยายามสร้างความขัดแย้ง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โดยไม่ยอมรับข้อเสนอ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ที่ดินเขตโซลประจำปี2560 เพื่อชดใช้เงิน850,000ดอลลาร์สำหรับบ้านที่ซื้อมาในราคา330,000 ดอลลาร์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สริมสร้างความเข้าใจ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อสถานการณ์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ในข้อพิพาทที่เกิดขึ้นจากกระบวนการพัฒนาขึ้นใหม่

ในเส้นนี้ที่แล้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ป็นเจ้าของที่ดินมีจำนวน241.39 ล้านตารางเมตร (241.4 กม.) ซึ่งคิดเป็น0.2% ของพื้นที่ดินแดนแห่งชาติ (10,643 กม.)มันเทียบเท่ากับสองในห้าของพื้นที่ของกรุงโซล (605km²) จำนวน29.916 ล้านล้านวอน (ราคาประกาศ) ตามสัญญาชาติ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เพิ่มขึ้น0.6% เป็น125.51 ล้านm2 คิดเป็น52% ของความเป็นเจ้าขอ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งหมดตามด้วยจีน7.8% ญี่ปุ่น7.6% และยุโรป7.4%

<한글 기사 3면>

이아리 기자

120 Gyeonggido call center

Foreign languages counseling service

Counseling language :
English, Japanese, Chinese, Mongolian, Vietnamese
(Included 5 languages, we can offer 19 foreign languages counseling by 3 way phone call with BBB Korea)

The business hours :
9 a.m. to 6 p.m. weekdays

Counseling range :
About administrative agency work
daily life inconvenience

다문화가족 '과천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 UP

과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민 만족도' 도내 1위



과천시는 2020년 경기도가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자체별 사업의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만 20세 이상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및 개선방향 등을 확인해 현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해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만족도 부문에서 65.3점을 기록하여 도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은 51.7점이다.

과천시보건소는 매년 시민의 건강 문제와 보건 의료 욕구 등을 파악해 수혜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육아를 위한 완전초보 육아교실, 유. 아동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튼튼이 교실, 흡연예방 인형극,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건강체험관 운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바른자세교실,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대상으로는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운동교실,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대상의 경로당 주치의와 방문건강관리,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올해도 지역사회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전취약계층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가구 점검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11일 과천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 등 173곳 중 6곳을 방문해 시설 장비 작동 상태와 관리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김종천 시장의 이날 방문은 화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겨울철을 맞아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김 시장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위해 각 가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가스 감지 센서 등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점검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있는 안전장치인만큼, 작동이 올바르게 되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 등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등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19 등에 응급상황을 알려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의 기자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въезд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з Китая, Гонконга и Макао

С 00:00 12 февраля применяются особые и м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позволяющие иностранцам из Китая, Гонконга и Макао въезжать в страну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х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контактных данных.

Ким Кан Рип,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 про CoV19, на очередном брифинге «С 0 часов дня Гонконг и Макао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пециальны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оцесс» и также «Эти две страны являются особым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зонами в Китае из-за их частых посещений материкового Китая и недавнего большого числа пациентов» подтвердил он.

С 4-го числа дей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въезда», чтобы открыть отдельный въездной за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Китая и проверить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фактическую контак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ающих из Китая. Но Гонконг и Макао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В Гонконге 49 пациентов были подтверждены

как CoV19, и один из них умер. В Макао имеется 10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пациентов, и один из них был вылечен. Специальные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были введены для 3 355 человек на основе 76 рейсов из Китая, которые 11-го числа прибыли с 0 до 24 час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усилило последующее управление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установив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амодиагностики»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кор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цев во время специальног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процесса.

Имм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или приложение самодиагностики на своих смартфонах, будут обнаруживать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симптомы, такие как жар, кашель и боль в горле, один раз в день с помощью функции самодиагностики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после въезда в Корею.

Если в этом приложении выбрано более одного симптома, сначала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колл-центр Центра 1339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и отбор информации о клинике, чтобы вызвать доброволь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Для им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выбирали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симптом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одряд,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и должна быть связана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посещают ли они скрининговые клиники.

Приложение также подключается к скрининговым клиникам и каналу службы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sns) 1339 для консультативных центров, чтобы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о подозреваемых инфекциях.

Приложение может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о с помощью кодов URL и qr, написанных на досках для посадок в аэропортах и портах, а также в специальных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отчет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чиновник сказал: «Система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ме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иложение само-диагностирует каждый день и проверяется два дня подряд». Так же он объяснил, что "Трудно предсказать, сколько будет соотношение в первый раз. Помимо 1339, контент доставляется местным органам власти». <한글 기사 36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다문화가족도 함께예요

24시간 보육,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 등 진행 눈길

-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
2020 안양시 민간단체 공모

공모기간 : 2020. 2. 3.(월) ~ 2. 19.(수)
공모대상 : 관내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단체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
공모분야
- 결혼장려 문화조성을 위한 청년 인식개선 사업
-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위한 다둥이 가족 축제
- 일·가정 양립 및 기타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등
사업비 : 15,000천원 (분야별 1개 단체에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
접수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이메일(hb3502@korea.kr)
- 오프라인 접수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방문접수(5층)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 8045 5791



24시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안양에 등장한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는 2월부터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안양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인 신촌어린이집(동안구 신촌동)을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 24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5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육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에 신촌어린이집(031-386-585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며 식대 2천원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여행 등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목적으로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 진행

안양시가 시민참여 속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꾀한다. 관 위주로 시행되었던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안양시는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 결혼장려 문화조성을 위한 청년 인식개선 △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위한 다둥이 가족 행사 △ 일·가정 양립 등의 분야가 핵심이다.

이밖에 저 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개선도 응모 가능하다.

관련 사업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시 홈페이지(anyang.go.kr)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까지 시 해당 부서(청년정책관 8045-5791)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안양시는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두 차례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 공무원은 “현재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고민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공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안양예술공원, 글로벌 관광명소로 5곳에 다국어 해설 QR코드 부착

안양예술공원이 글로벌 관광명소로의 면모를 갖추는다.

안양시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안양예술공원이 경기도 대표 관광지 20곳에 선정된 것과 관련, 예술공원 내 5곳에 다국어해설 지원이 가능한 QR코드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QR코드 부착된 곳은 종합안내관, 안양박물관, 안양사, 안양파빌리온, APAP작품인 '나무위의 선으로 된 집' 등이다.

이들 5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해당 작품 및 지역에 대해 스마트폰 국적의 언어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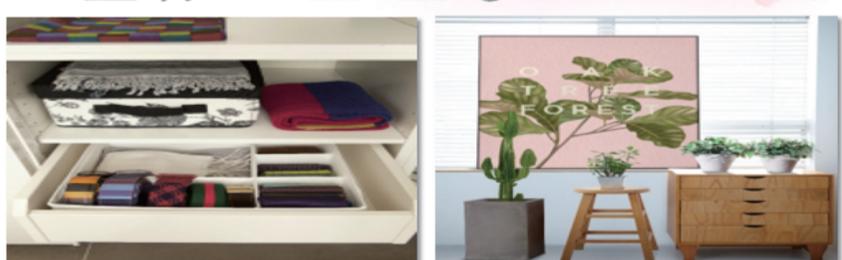
스마트폰을 QR코드에 스캔하는 순간 국적에 맞는 언어로 자동 번역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나 문화해설사 없이도 예술공원을 관광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해설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QR코드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국어 안내 QR코드 부착뿐 아니라 안양예술공원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안양예술공원에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안양파빌리온에 관광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VR체험관 설치 및 예술작품 이미지 매칭 도입 등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현명한 가사분담-수납정리"
봄맞이 집 단장하기~!!



☐ 대상 : 맞벌이가정 워킹맘 워킹대디 25명 (배움을 원하는 자녀 참여 가능하며 **부부 참여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anyang.familynet.or.kr>)
☐ 장소 : 동안구청 별관 센터 3층(지혜나눔방, 행복나눔방)
☐ 참가비 : 무료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	내용	준비물
3월21일(토) 10:00~12:00	우리 집 소품(서랍 책꽂이) 만들기	
3월28일(토) 10:00~13:00	깔끔 정리의 팁	양말, 긴 소매 티셔츠 (실습용)
	진환경 손쉬운 청소법	
	진환경 만능세제 만들기	

☐ 문의 : 일·가정양립지원 담당 ☎ 031-8045-5476
✓ **대가 신청자는 공식 발생 시 신청 순서에 따라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워킹맘 증빙서류 제출: 명함, 사원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간편 제출 (시간제, 프리랜서도 가능)
* 제출방법: 참여 확정 후 문자 안내 (1년 1회 제출)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안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과 다문화 가족 간의 관계향상을 돕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제공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지원언어 : 베트남어
♡ 문의 및 이용방법 : 전화 031-8045-5706 담당 도수연
방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구청 별관 동안문화관 2층.

HƯỚNG DẪN DỊCH VỤ THÔNG BIẾN DỊCH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DI TRÚ

Hỗ trợ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nhằm giúp đỡ cải thiện mối quan hệ giữ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giúp ổn định thời kỳ đầu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kết hôn di trú và giải quyết khó khăn về giao tiếp giữa gia đình đa văn hóa.

♡ Đối tượng nhận dịch vụ: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c cơ quan hoặc cá nhân hỗ trợ trực, gián tiếp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Thời gian sử dụng: 09:00 ~ 18:00 thứ hai ~ thứ sáu
♡ Tư vấn: người phụ trách do số 031-8045-5706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의 전생기는 이제부터! 결혼이주여성, 아리오나 이야기(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 '우리 곁의 외국인주민'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 자료집

국내 최고의 외국인주민 인권 옹호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해 12월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경기도, 우리에게 맡겨요' 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 문화적으로 낯선 이주의 공간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외국인주민을 발굴해 소개하는 작업은 우리 곁의 이주민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일곱 명의 이주민들을 따라가 보자.



#프로로그

아리오나는 울란바토르 출신의 몽골 여성이다. 2006년 고용허가제로 입국, 안성의 순대국 공장 노동자로 출발한 그녀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아이의 엄마요, 무뚝뚝하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불경기를 모르고 낱알이 변창하는 식당과 노래방의 사장님이요, 지역 초등학교 시간제 한국어 및 몽골어 교사요, 이주민지원센터

의 상담활동가이며, 공동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2013년 방송통신대에 입학한 늦깎이 법과대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칭찬받아 마땅할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녀는 대충 하는 적이 없다.

그 모든 일에서 예외 없이 그녀는 혁신적이며 동시에 헌신적이다. 그 어느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녀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후회 역시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우먼의 전형, 아리오나가 바로 그런 여성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출발은 슈퍼 능력이 아니라 슈퍼 좌절이었다. 몽골을 떠나기 직전 그녀의 인생은 만신창이 상처투성이였다.

이모가 보내준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상처뿐인 그녀가 찾아온, 이주민에게 결코 관대하거나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후발이민국가 대한민국, 그 낯선 이국땅에서 모든 약조건을 보란 듯이 이겨내며 그녀는 당당하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몇 개야? : 힘들죠

그러나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생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아리오나는 바쁘다. 그녀의 활동 영역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순대국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이주여성노동자였던 그는 현재 주말이면 '대기'해야 입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식당과 노래방의 사장님이며, 다문화 강사이며 초등학교 한국어 및 몽골어 강사이기도 하다.

일주일에 이들은 지역의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과 통역을 하는 자원활동가이자 '세계인의중심 몽골' 공동체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몽골에 있는 세 동생의 든든한 후견인이며, 그녀가 가장 소중한 세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다. 방송대에 재학 중인 법학도이기도 하다.

본인 스스로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때로는 힘에 부쳐 그 중 한 두 가지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적도 있었다고 고백한다. 앞으로는 일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덧붙인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제부터는 몇 가지만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짐짓 엄살처럼 들린다. 그녀가

고백하는 어려움보다 그가 확신하는 금지가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녀의 사업 기술-먹는 공간을 관계의 공간으로

아리오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대충하는 법은 없다. 한국 요식업계의 폐업율은 전산업계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한다.

경쟁이 가장 치열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임을 뜻한다. 그러나 아리오나의 식당은 날로 성장 중이다. 4년 전 유동인구가 없는 변두리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에 시작한 그의 식당은 현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백만원의 핵심 상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따금씩 도와주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무서워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중이다. '차별화' 전략 탓이다.

그는 오는 손님만큼이나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에 주력한다. 바로 배달이다. 몽골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체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 때에 배달해 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간 관리와 메뉴 개발이 필수이다.

그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결코 같은 메뉴를 연속해서 내놓지 않는다. 또 하나는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이다. 그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맛 품평)을 존중한다. 불만이 만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그의 식당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긍정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관계의 공간'으로 격상된다. 그가 그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임대료 걱정을 하거나 손해 본 적은 없다."가 자신하는 이유다.

"전에 노동자로 일할 때 한국음식이 안 맞기도 하고, 몽골음식 먹고 싶었어요.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나 자기나라 음식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밥 못 먹을 때 우리 식당에 와서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나면 다음 날부터 다시 신나고 힘 있게 일 시작할

수 있거든요.(제가 우리 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녀의 상담 기술 - 문제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건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몽골어 상담이나 통역 지원 같은 비영리 영역의 일들은 보람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내담자에게 절박한 일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내담자가 결코 예의바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더욱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리오나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부단히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리오나가 생각하는 상담의 원칙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압축된다. 문제를 해결해주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감사의 사례는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사례를 사양하는 것이 관련된 내담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담자들과의 '신뢰 관계' 역시 공고히 해줌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상담 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공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적인 과정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담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 믿음을 주고 지키고 잘 되게 하려면 성실하게 잘 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물을 주거나) 돈을 줄 때 거절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의 공부의 기술-쉽지 않지만, 포기란 없어요

2013년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선택한다. 바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입학이다. 아리오나에게 법학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몽골에서 그는 법학도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는 법학을 선택했다.

그러나 법관이 되고 싶은 그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비록 법관의 꿈은 무산되었으나 법학 공부는 그녀로 하여금 법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안국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정보 물어보세요”

다문화가족 생활법률정보, 국적 취득과 운전면허, 친지초청에 대해



(질문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답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

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답2)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3)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

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㉔)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방문(㉔)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원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증을 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번호)에 의한 입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신청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2020 2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7	28	29	30	3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1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도 새해 건강 도전

화성시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할 시민 및 직장인 총 180명을 3일부터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코디네이터와 영양사, 운동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팀이 ▲원격 건강관리 ▲건강미션 제공 ▲매월 상위랭킹자 인센티브 제공 ▲정기적인 1:1 건강상담 등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나타난 20세 이상 화성시 주민 또는 관내 사업장 소속 직장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3일부터 21일까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9)로 전화접수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화성시립서부아동청소년센터 개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도 교육서비스 제공



민선 7기 화성시가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첫 도입한 '시립아동청소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능동과 향남읍, 봉담읍 3개소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2개소를 추가 설립할 방침이다. 먼저 3일 송산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시립서부아동청소년센터'가 지난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소한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총면적 997㎡, 프로그램실, 조리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오는 3월에는 남양읍 모두누림센터 3층에 '시립남양아동청소년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지

역 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급식부터 수준별 국영수 학습과 문화·예술·스포츠·여행 등 창의지성프로그램, 아동 및 가족 상담, 후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 대상의 폭이 넓으며,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 후원, 시민 재능기부 등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2022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총 10개의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과 손잡고 화성형 돌봄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의 개소식은 열리지 않는다.

이지은 기자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수수료 지원

다문화가족도 저소득이면 최대 30만원

화성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

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홍사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 안전망이 보다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0' 드림하이합창단 단원모집안내

드림하이합창단에서는 노래라는 매개체 통해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며,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나눔을 함께 실천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시간		연습장소
주니어반 (1학년~3학년)	대주 토요일 10:30~12:30	더 담 아브홀 (화성시 봉담읍 중화리 45-5 201호)
시니어반 (4학년~6학년)	대주 토요일 13:00~16:00	
유스클럽 (중학교 1학년~)	대주 일요일 16:00~18:00	

오디션 일정

일시: 2020. 3.07(토) 오후 3시

장소: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4층)

모집기간 | 2019. 2. 13(월) ~ 3. 06(금)

모집대상 | 화성시 관내 다문화 가족 자녀(초등 1학년 ~ 초등 4학년)

신청방법 | 전화접수(031-267-8776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집인원 | 0명

오디션안내 | 자유곡 1곡 및 지정곡 *오디션 당일 자유곡 약보 2부 제출 (지정곡: 달팽이의 하루김정선)

합격자발표 | 심사 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별연락

합격시특전 | 주 1회 합창연습(공연/대회에 따라 추가 연습)

-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연습 및 활동
- 화성시 관내 축제 및 지역연주 참여
- 문화체험(공연관람)
- 연주 시 봉사활동시간 부여(1365 자원봉사센터 등록)

Qui tắc phòng ngừa nhiễm vi rút mới Corona

Qui tắc phòng ngừa nhiễm bệnh

Rửa thật sạch lòng bàn tay và kẽ móng tay bằng xà bông!

Dùng tay áo che miệng và mũi khi ho!

Người có triệu chứng về đường hô hấp như: bị ho, khi đến cơ quan y tế phải đeo khẩu trang

Khi đến phòng khám chọn lọc và cơ quan Y tế phải khai báo với bác sĩ về việc từng đi nước ngoài về

Khi thấy nghi ngờ bị nhiễm bệnh hãy tư vấn ở Phòng Y tế địa phương hoặc tổng đài 1339

* Hướng dẫn Phòng khám chọn lọc : Sở Y tế địa phương và số khu vực +120

Khi du lịch đến Trung Quốc cần chú ý

Cấm tiếp xúc với động vật (bao gồm cả gia cầm)

Không đến các chợ và bệnh viện của nước sở tại

Cấm tiếp xúc với người bị sốt, có triệu chứng đường hô hấp (ho, đau họng vv...)

- Đeo khẩu trang khi ho
- Tuân thủ qui tắc vệ sinh cá nhân như rửa tay, che miệng khi ho

- Sau khi du lịch đến Trung Quốc về cần khai báo tình trạng sức khỏe tại cửa khẩu
- Sau khi về nước nếu phát sốt và có triệu chứng đường hô hấp (ho, đau họng vv...) hãy tư vấn ở Phòng Y Tế địa phương hoặc tổng đài 1339

*Hãy kiểm tra thông tin về nhiễm bệnh tại haioigamyeobingNOW.kr

발행일 : 2020.1.28

Do I Need to Change My Parenting Style to Keep Up With My Kid's Friends?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아이의 친구들을 따라 제 육아스타일도 바꿔야 할까요?

Parents.com's 'Ask Your Mom' advice columnist, Emily Edlynn, Ph.D. explains how compromise and awareness of your child's developing friendships can help you find a balance between keeping up and keeping rules.

My 9-year-old son loves playing video games at his friends' houses, but we don't have them in our home. He now says he needs to have these games in order to host playdates here. How much should we keep up with what other families have to benefit our son's social life? My son plays a musical instrument, builds Legos, reads, and listens to music happily in his free time, so I don't feel that we need video games, however, I do sympathize with his wanting to impress friends.

Dear Can't Keep Up,

I haven't yet met a parent of a school-aged child who hasn't heard, usually in the form of whining, "Everyone else's parents let them!" My own children have informed me that everyone else has candy in their lunches on the daily, and we are, in fact, the strictest parents ever for insisting they eat sandwiches and fruit. Of course, I know this is not true, but nevertheless, they're persuasive.

It's so easy to raise our children in the carefully curated environment we want for them ... until they have to do things like go to school and make friends. This is part of our own growing pains as parents?balancing what we want for our kids socially (who doesn't want their child to feel accepted?) while also preserving our values in the home and family we have so thoughtfully created during their younger years.

Your question brings up an interesting twist on this age-old complaint because it's not about changing your rules at home to be like that abstract group, "everyone else;" it's a more immediate and real concern about changing what you do at home to help your son feel more confident about hosting his friends.

Understand His Ask

Although we may rush to the cliché, "if your friends jumped off a bridge, would you?" to instill confidence in one's own individuality, the reality is that as social beings, we do a lot of conforming. That's kind of how social groups and community end up working out. So, I appreciate your acknowledgment that your son is not challenging you to be like "all the other parents," but is wanting to impress his friends and not feel too different.

As much as we prize individuality in parenting and want to nurture confidence in each of our children's uniqueness, we want them to have friends and know how to get along with others. Part of developing strong social skills (by the way, very predictive of many types of success in adulthood) is finding common interests with peers. Research shows that from babyhood, children gravitate toward those who appear similar to them.

When our kids want to be like the other kids, it's a natural and healthy part of their drive to be social beings. It doesn't mean we give them candy in their lunches every day or allow unlimited video game time, but we can at leas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feeling like they belong, and, at least sometimes, find places where we can bend our rules.

Collaborate on House Rules

The great news is that your son sounds satisfied with his non-video-game home when it's not about having friends over. That is a major parenting achievement in this day and age, so give yourself a huge pat on the back! Then, think about ways to flex these rules with your son's social life in mind.

At the age of nine, he can collaborate with you to develop a plan that falls in the middle of the two extremes: zero screens and hours full of screen time. Is there a way he could share what he loves to do at home, like building Legos, with what his friends love to do? Knowing how hard it can be to transition from screens, it might make sense to

start with a non-video-game activity to test the waters, but with the permission to get out the video games afterward.

Be Your Child's Coach

This is also when you have a license to eavesdrop. As your son's ultimate life guide, you can listen in to how his friends respond and how your son handles it. You can get a sense of what he's dealing with in terms of peer pressure, and if he needs any coaching to manage it.

Best case scenario? Your son has kind and respectful friends who like your son for who he is and not what he has to offer. You discover this, and so does he. He becomes more confident in both his home as a fun place for friends, and in his friends. Likely scenario: It's not all that clear-cut, and there will be more discussions and tweaking. Regardless, it is an opportunity to figure out friendships and how to be an individual while also

belonging.

The Bottom Line

In between moments of my own 10-year-old daughter begging to watch "grown-up shows" like Stranger Things, she has actually thanked me for our rules. As much as she wants to test the limits, those limits also help her feel safe, and at least part of her knows that. Your son may also be grateful for your rules and the refuge they have created, but also grateful for your openness to be flexible around friends.

Emily Edlynn, Ph.D., is the author of The Art and Science of Mom parenting blog and a mother of three from Oak Park, Illinois. She is a clinical psychologist in private practice who specializes in working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By Emily Edlynn, Ph.D.
Parents.com

Whoa! When It Comes to Video Games, an Hour a Day Is OK

Playing video games for an hour per day can actually benefit kids, a new study says, but more than eight hours a week could be harmful.

Can playing video games make you smarter?

Yes and no. Spanish researchers studied the video game habits of more than 2,400 boys and girls between the ages of 7 and 11, and found that the "gamers" (who played about four hours a week on average) had faster reaction times than non-gamers, and register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school.

Whoa! But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ose same gamers weren't any more advanced than the non-gamers when it came to memory and attention skills, and any skill enhancements they did glean from gaming began to max out after about eight hours a week.

In addition, the kids who played nine hours or more a week were more likely to have social and behavioral

problems?things like conflicts with other kids, problematic conduct, and poor social skills. Plus, the more time kids spent gaming, the less time they spent sleeping.

The bottom line? Our kids should be logging off at right around the hour-a-day mark.

"One to nine hours per week seems to be safe," explained study author Dr. Jesus Pujol. "But playing more than nine hours?one hour on weekdays and two hours on weekend days?may not be recommended for children 7 to 11 years old."

I'll be honest?my son is 10 and definitely spends more than four hours playing video games on the weekends. Which means he's got some big changes in store. Because while Dr. Pujol admits that spending a decent amount of time in front of a screen may be good, and even necessary, for our children, he added that time limits and the combination of gaming with physical/outdoor activity are recommended.

Parents.com

다문화가족도 즐거운 문화나눔

태안농협, 화성문화재단에 객석나눔사업



(재)화성시문화재단과 NH태안농협협동조합은 지난 5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NH태안농협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객석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태안농협이 지정 기탁한 기부금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가구, 새터민 등 시민들이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의 기획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태안농협 김형규 조합장은 "태안농협이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환원한다"며 "기부금이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문화재단 최형오 대표이사는 "기관의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객석나눔사업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시민들을 위한 객석나눔 사업을 진행중이며 2019년 태안농협과 함께하는 객석나눔사업으로 1천89명의 시민들이 20편의 작품을 관람한 바 있다.

2020년 태안농협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객석나눔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기획공연에 한하며, 관련사항은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취업탐색 멘토링' 참여해요

다문화가족 등 재직자 3월 6일까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안혜연, 이하 WISET)는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롤모델이 되어줄 과학기술인 멘토 팀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WISET 취업탐색 멘토링'은 기업, 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 멘토와 이공계 전공 여대학(원)생 멘티가 팀을 이루어 취업 탐색과 진로 설계 등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여 멘티들이 이공계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이 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남·성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14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멘토 팀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선정된 멘토 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멘토 재직 기관 탐방 △직무 탐구 △소그룹 멘토링 △

멘토링 워크숍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기관 탐방의 경우 다른 멘토 팀에 선정된 멘티들도 참여하도록 참여대상을 오픈할 경우 일부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한 활동을 펼친 멘토에게는 연말에 올해의 멘토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멘토 팀은 WISET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hiji@wiset.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제도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연수사업이며, 복원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www.wiset.or.kr

이지은 기자

자세한 내용은 분리배출 앱을 참고해주세요.

분리배출 방법, 꼼꼼히 알려드려요!!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종이 종류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골판지 박스

택배 손상스티커, 테이프 제거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해주세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주세요.

신문·책자류

페트병으로 분리배출

스프링은 메서서 따로 배출

내부물 비운 후 씻기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영수증·전표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색지 등

코팅지

금은박·알루미늄·비닐 코팅지, 명함·사진, 방수코팅된 포장박스 등

오염된종이

폐휴지, 기저귀, 음식물·세제·기름 등이 묻은 종이

기타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등

질병관리본부 KCDC

Qui tắc phòng ngừa nhiễm vi rút mới Corona

Triệu chứng chủ yếu

- Phát sốt
- Viêm phổi
- Có triệu chứng đường hô hấp: Ho, đau họng v.v...

Nhân tố nguy hiểm

Triệu chứng phát hiện sau khi viếng thăm Trung Quốc

Khách tham quan

- Trước khi du lịch nước ngoài hãy kiểm tra thông tin về nhiễm bệnh tại hai.gallup.com/NOW.kr
- Cấm tiếp xúc với động vật (bao gồm cả gia cầm)
- Cấm tiếp xúc với người bị sốt, có triệu chứng đường hô hấp (ho, đau họng v.v...)
- Rửa tay dưới vòi nước đang chảy trên 30giây, che miệng bằng tay áo khi ho

Sau khi tham quan Trung Quốc thấy có triệu chứng*

* Triệu chứng chủ yếu: Viêm phổi, phát sốt, có triệu chứng đường hô hấp (ho, đau họng v.v...)

- Hãy tư vấn ở Phòng Y Tế địa phương hoặc Tổng đài 1339
- Hãy đeo khẩu trang*
 - * Đặc biệt khi ra ngoài, hoặc đến cơ quan y tế cần phải đeo khẩu trang
- Phải đến Phòng khám chọn lọc* và Cơ quan Y tế phải khai báo về việc từng đi nước ngoài về
 - *Hướng dẫn Phòng khám chọn lọc: Phòng Y tế địa phương và số khu vực +120

게시일 : 2020.1.28

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빅마마, 2020년에도 기대 크다

지역사회의 함께아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프로그램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 화성다가)가 ‘우리 동네, 빅마마’의 화성시 전 권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3기 돌봄 활동가를 모집한다.

‘우리 동네, 빅마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봉사활동에 기여할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모집해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자녀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심 외 농촌 지역이나 사회복지 기반이 전무한 지역에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다문화가정과 같이 소득이 높

지 않은 가정은 소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방치되는 아이들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창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에 빅마마 활동 지역을 남양읍, 송산면, 비봉면, 봉담읍, 향남읍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빅마마 4명을 모집하고 있다.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모집기간을 거쳐 선발된 빅마마들은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을 발굴하고 ▲다문

화 가족 자녀 생활지도 및 돌봄을 시행하며 ▲우리동네, 빅마마 사업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자들은 전원 면접을 거치게 되며 자원봉사 마인드가 투철하고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주 15시간 이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선발된다.

이현주 센터장은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평가를 해보면 고위험군으로 나온다”며 “가정에서 방치되다 보니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아이들을 지역 안에서 먼저 돌보면 어떨까, 지역의 엄마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엄마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고민하다 빅마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그간 빅마마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감사한다”며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악취 없는 청정화성 불법행위 사전 차단

화성시가 악취 없는 청정 화성을 목표로 축산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화성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총 1,733개소 중 집중점검 대상을 선별해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84개소와 악취 민원 상습 발생 시설 11개소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남양호 일대에 신규 축사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과, 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가 연합해 반기별 전수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악취가 심해지는 봄철과 장마철에는 하천주변 축산농가 103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적치하거나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고, 관련 수집 운반업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업소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무인악취포집기와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축종별 찾아가는 농가교육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Thủ tục “Nhập cư đặc biệt dành” cho người Trung Quốc, Hồng Kông và Ma Cao

Từ 00:00 ngày 12 tháng 2, các thủ tục nhập cư đặc biệt đã được áp dụng để cho phép những người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ến từ Trung Quốc, Hồng Kông và Ma Cao vào Hàn Quốc chỉ sau khi xác nhận được địa chỉ cư trú và chi tiết liên lạc của họ.

Ông Kim KangRip, phó tổng giám đốc của Trung tâm phòng chống tai nạn Corona 19 đã có cuộc họp ngắn. Tại cuộc họp ông cho biết rằng “Từ 0 giờ ngày này, Hồng Kông và Macao đã được đưa vào khu vực nhập cư đặc biệt” và “Hai nước là khu vực hành chính đặc biệt ở Trung Quốc nên họ có nhiều đường giao thông đến và đi từ Trung Quốc vậy nên tỷ lệ bệnh nhân gần đây rất cao.”

Từ ngày mùng 4 vừa rồi, một khu vực nhập cảnh riêng cho Trung Quốc đã được

mở khẩn cấp. Thủ tục nhập cư đặc biệt được áp dụng để cho phép nhập cảnh trực tiếp với những người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ến từ Trung Quốc sau khi xác nhận được địa chỉ cư trú trong nước và thông tin liên lạc là đúng. Nhưng Hồng Kông và Ma Cao đã bị loại trừ.

Với dịch corona 19, ở Hồng Kông có 49 người bị nhiễm và 1 người chết. Macao có 10 bệnh nhân được xác nhận và 1 người đã được chữa khỏi.

Từ 00:00 giờ tới 24:00 giờ ngày 11 vừa qua, thủ tục nhập cư đặc biệt đã được tiến hành và áp dụng cho 3.355 hành khách trên 76 chuyến bay của các hãng hàng không đến từ Trung Quốc.

Chính phủ cũng đã tăng cường quản lý theo dõi sau khi vào những người đó nhập cư vào nước này thông qua thủ tục nhập

cư đặc biệt, bằng cách cài đặt ứng dụng tự chẩn đoán trên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ể theo dõi tình trạng sức khỏe của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quá trình nhập cư đặc biệt từ ngày 12 vừa qua. Những người nhập cư đã cài đặt ứng dụng tự chẩn đoán trên điện thoại thông minh của họ trong tối đa 14 ngày. Hàng ngày điện thoại sẽ chuẩn đoán xem có các triệu chứng đáng ngờ của việc nhiễm virus như 1 lần phát sốt, ho, đau họng... hay không. Nếu ứng dụng phát hiện ra nhiều hơn một triệu chứng, thì nó sẽ hướng dẫn kết nối tới tổng đài 1339 - Phòng thông tin kiểm soát dịch bệnh và trung tâm tư vấn để người đó được ưu tiên về các phòng khám sàng lọc để khuyến khích tư vấn tự nguyện. Ứng dụng này cũng được liên kết với các tổng đài tư vấn và tổng đài 1339

kênh tư vấn dịch vụ mạng xã hội của trung tâm tư vấn cuộc gọi (SNS) để giải đáp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những triệu chứng đáng ngờ. Ứng dụng này có thể được cài đặt thông qua URL và mã QR được viết trên thẻ lên máy bay tại các sân bay hay các bến cảng, và các tờ khai báo nhập cư đặc biệt.

Nhân viên chính phủ giải thích rằng: “Đây là hệ thống mà sau khi cài đặt ứng dụng này, nó sẽ thực hiện chuẩn đoán mỗi ngày; sau hai ngày kiểm tra liên tiếp, nó sẽ chuyển qua hệ thống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ì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nên sẽ khá khó khăn trong việc đánh giá tỷ lệ của nó đạt được là bao nhiêu. Cùng với 1399, nội dung của nó sẽ được chuyển t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eo cách riêng”.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